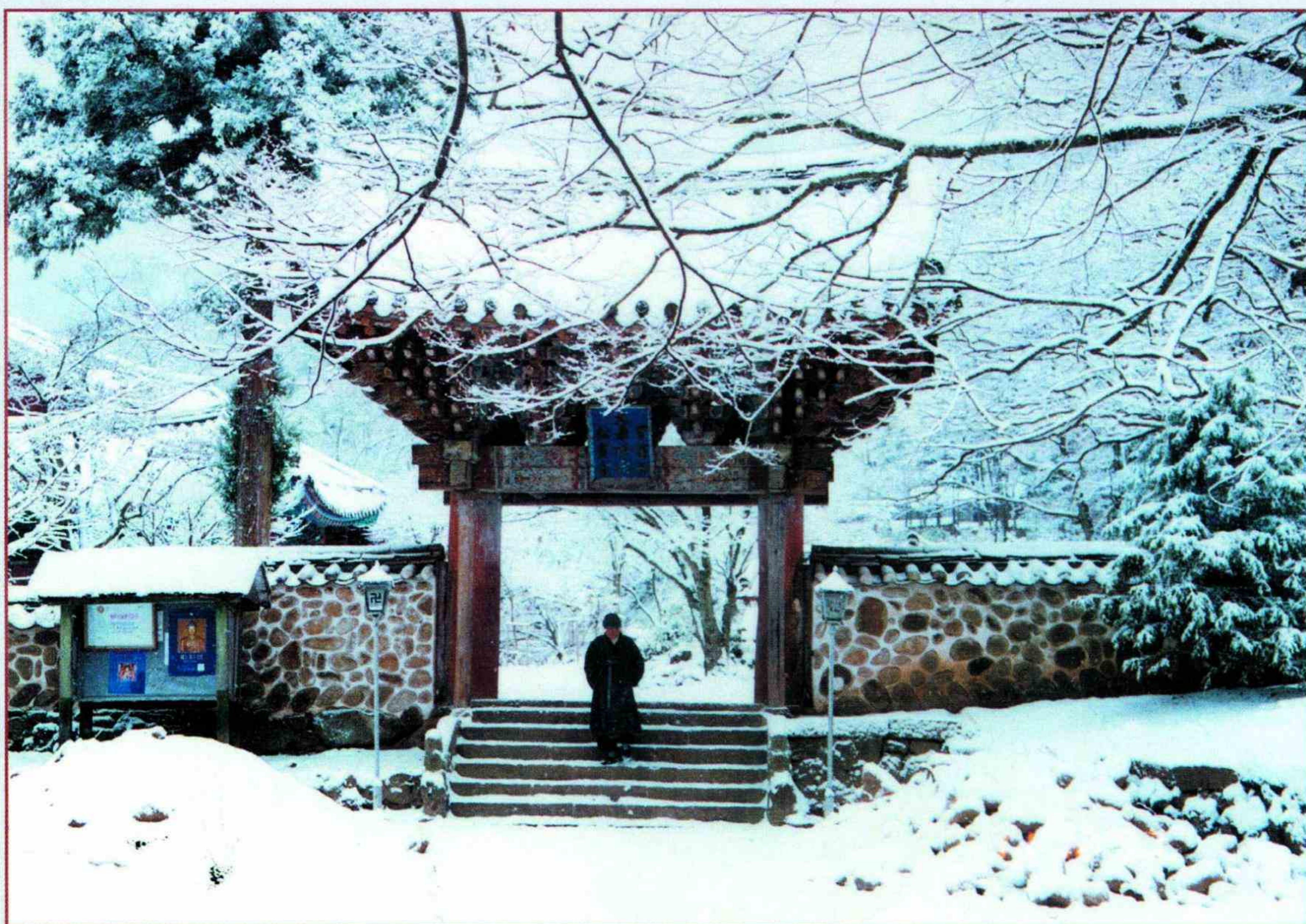


定慧社

제 16 호
불기 2541년
겨울 호



松廣寺講院
송광사강원

작은 실천

요즘 국민들의 관심사는 국가가 부도에 처할 만큼 경제가 심각하여 모두가 경제 걱정, 나라 걱정들이다.

왜 이런 상태로 되어 버렸는가! 선진국을 향해 줄달음쳐 왔고,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 냈다고, 세계 각국에서 칭찬하며 우리들 스스로도 자부심이 대단하였었는데……. 오늘날과 같은 경제 위기가 초래된 데에는 근본적으로 정부 책임자의 안이한 국정운영과, 정경유착을 통한 문어발식 사업확장으로 방만한 경영을 해온 재벌기업가들에게 우선 책임을 물을 수 있겠지만, 우리 국민들에게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살림살이가 조금 나아졌다고 하여 고급화. 외제품 선호로 인한 사치 풍조의 만연과 무분별한 해외여행으로 인한 외화낭비, 소비향락에 빠져 흥청망청 돈을 소비한 것이 오늘의 위기를 불렀지 않나 생각해 본다. 분수를 모르고 허영에 들떠 생활해 왔고, 절제를 모르고 살아 온 우리들이 받아야 할 당연한 과보인지도 모른다.

지금 우리는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으로 시간을 소비할 때는 아니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뭉쳐 지금의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우리의 승가도 마찬가지다. 나라가 위기에 닥칠 때마다 백성들을 이끌고 국난극복에 앞장섰던 역대 조사스님들의 행적을 보더라도 우리 스님들과 불자들이 앞장 서서 작금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모범을 보여 주어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나부터 청빈한 생활, 근검절약하는 생활을 해야한다. 한 바가지 사용하던 세수물을 반으로 줄여 사용하고, 양치하는 물도 지금의 반으로 줄이고, 화장지 사용하는 것도 반으로 줄이고, 차담의 양도 줄이고, 이면지를 연습장으로 활용하는 지혜를 발휘해 보자. 그리고 방안의 온도도 조금 낮추고, 사용하지 않는 전열기구의 코드는 뽑아 놓고, 택시 보다는 버스를 이용하고, 웬만한 거리는 건강삼아 걸어 보자. 이 작은 실천 하나가 위기에 처한 오늘의 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定慧社

제 16호 불기2541년 겨울호

발행처/송광사 강원·發行人/智雲(講主)·편집인/
마공(입승)·편집장/정원·편집/월륜, 보각·사진
삽화/혜전·발행일/2542년(음) 1월 15일·주소/전남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12 ☎ (0661) 755-5300, 5302·
인쇄/도서출판 보림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 62-1
☎ (062) 232-6702

차 례

조계의 물소리	작은 실천	편집부
사진 속의 이야기	2/ 수행(修行)	편집부
기획연재	14 4/ 강원은 수행도량이고 학인은 구도하는 수행자이다	지운
지대방 이야기	12/ 나의 저녁예불	일과
	14/ IMF시대와 수행	정산
	16/ 공생	덕우
	18/ 치문반 생활을 마치며	도빈
	20/ 어느 고3 어머니의 얘기	일대
	22/ 첫 눈	혜성
화보소식	24/ 화보로 보는 강원소식	편집부
특별기고	28/ 설법방법론(1)	진옥
운력	31/ 축구운력	혜전
	33/ 김장운력	화진
토론	35/ 불교·원불교·천주교·천도교·기독교간 토론	편집부
경전한귀절	39/ 안내자	편집부
원전번역	40/ 권수정혜결사문(3)	대용
	43/ 도안법사 유계	도담
가장돕기와 강원기금	47/ 소년소녀 가장돕기와 강원발전기금	편집부
편집후기	48/ 편집후기 및 후원안내	편집부







수행(修行)

塵勞迥脫事非常
緊把繩頭做一場
不是一蒜寒徹骨
爭得梅花撲鼻香

진로를 멀리 벗어나는 일은 범상치 않으니
긴급히 노끈 끝을 잡아 한바탕 지을지어다
이 한번 차가움이 뼈에 사무치지 않으면
어찌 매화가 코에 부딪혀 향긋함을 얻으리요.

글 : 宛陵錄黃檗頌

■ 사진·번역 / 편집부

講院은 修行道場이고 學人은 求道하는 修行者다

3) 강원에서는 무엇을 주제로 공부하는가?

지운/강주

- 目 次 -

1. 강원은 교육기관이라기 보다는 修行道場이다.
2. 佛法을 학문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가?
3. 깨침에 이르는 방법은 오직 한가지, 觀照에 있다.
4. 강원에서의 교법공부로 과연 진리의 세계에 들어갈 수 없는가?
 - 1) 教法은 因의 힘을 가지고 있다.
 - (1) 법은 깨침의 법칙이다.
 - (2) 법은 수행체계의 원리이다.
 - (3) 教法은 깨달게하는 因이다.
 - (4) 教法은 自心을 印可하는 道具이다.
 - (5) 捨教入禪
 - (6) 信心과 發菩提心
 - 2) '공부'라는 말의 意味는?
- ※ 3) 강원에서는 무엇을 주제로 공부하는가?
 - 4) 看經하는 방법
 - 5) 예불, 참회, 정근, 염불 및 모든 습의는 수행이다.
5. 그러므로 講院은 修行道場이며 學人은 求道하는 修行者이다.

물론 현실을 망각한 시대착오적인 것이 아닌가 하고 항변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다. 현실의 변화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실체가 환이고 꿈같음을 깨달아서 속지 않고 속박에서 벗어나는 길을 제시하는 것이다.

현실이 환이고 꿈이라는 것은 無自性空이고 처음과 끝이 없는 同時因果이고 상호의존하는 연기이며 我空과 法空이다. 아공과 법공이란 無我를 말하는 것으로, 아무리 다양한 불교의 사상과 철학을 익혀 잘 알더라도 자신의 본질이 무아임을 모른다면, 현실 속에서 허덕이는 자신과 중생을 구제할 수 없다. 비록 무아라는 사상에 투철하고 상

대를 설복시킬 수 있는 논리를 갖추었다고 해도 계·정·혜 삼학을 통하여 무아라는 체험이 없다면 그것은 머리로만 익힌 相에 불과하다. 相은 서로 부딪히면 소리가 나고 크게 부딪히면 부서지고 만다는 특징이 있다. 그것이 물건이라면 말할 나위도 없고 思想도 서로간에 주장이 강하면 큰소리가 나고 나아가 주먹다짐이나 피를 흘리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탐진치의 어지럽고 시끄러운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하나의 범부요, 중생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불교적 입장은, 현실의 다양하게 변화하는 현상보다는 현실이 아무리 다양하게 변하더라도, 그 실체가 無我임을 체득하여 卍달리거나 집착하지 않는 마음의 고요와 깨달음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자신을 절대화하는 自我가 있는 이상, 그에 상대하는 대상을 절대화시키는 法我執이 성립되며 대립과 투쟁을 유발한다. 그러나 자아가 사라지면 비로소 상대를 받아들일 수 있는 용서와 화해 그리고 慈悲로서의 마음의 공간이 생겨 중생구제의 菩薩行이 가능해지고 菩薩道가 열리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강원의 교과목과 강의 및 생활은 이 마음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마음에 초점을 맞추고 戒·定·慧 三學을 통하여 무아의 고요함과 지혜를 체득한다 하더라도 현실의 다변화에 대응하는 다양한 불교사상과 철학의 결여로 인하여 다양한 근기의 중생을 구제하는 것은 어렵다고 반박할 수도 있다.¹⁾

그러나 이 주장도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 하나의 경전 속에는 이미 다양한 주제가 준비되어 있다. 조사어록이나 보살의 논서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이러한 다양한 주제도 마음이라는 귀합체가 있어서 주제간에 회통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 강원의 교과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강원교과목에 대한 오해는 인식의 부족에서 오는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송광사강원의 경우 원전강독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대학의 概論書도 도입하여 불교사상의 다양성을 습득하게 하고 있으나, 역시 수행체계에 의지하여 마음에 초점을 맞추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 서당식 강의란 동양식 교육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 강원에서의 原典講讀을 말하는데, 여기서 강독의 의미는 강의하고 토론하면서 읽어드는 것을 말한다. 서당식 강의를 무조건 나쁘다고만 말할 수 없다. 일반대학에서도 이미 원전강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단지 강독하는 강사의 역량에 따라 교육효과가 가늠되는 것이지 강독방식을 낙후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즉 대화식이나 문답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진리를 스스로 터득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講讀인 것이다. 송광사강원은 이미 강의방식도 주입식에서 문답식으로 바꾼지 오래다.

그러나 교과목이나 강의방식이 서구의 현대적 방법을 취하거나 동양식 강독을 취하더라도 교학 중심으로 흐르면서 계·정·혜 삼학의 수행체계를 무시하거나 외면한다면, 깨달음과는 거리가 멀어지면서 대학체제의 理論學習에 그치는 교육차원에 떨어지는 우를 범하는 사태가 올 수도 있다.

말하자면 강원은 배우는 教法을 戒·定·慧 三學의 생활로 구현하는 장이다.

佛法이 계행 예불, 참회, 간경, 독경, 염불, 공양

1) 知識을 지식에 머무르지 않고 질적으로 좀더 발전전환시켜서, 지식자체를 지혜로 바로 전환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바람직한 불교적 대안이 될 것이다.

지혜를 증장시키는 방법으로 禪修行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불교에서 말하는 布施, 持戒, 忍辱, 精進, 禪定, 智慧 등의 六波羅蜜이 바로 그것이다. 보시의 예를 들면 어떠한 相이 없이 주는 것, 실천적으로 베푸는 것인데 보시에는 내가 주니까 너도 줘야한다는 계약성이 없는, 분리되어 있지 않는 하나의 모습을 회복하는 방법 중의 하나이다. 이것이 바로 반야지혜라는 보시의 모습이다.

따라서 머리 속에 갇혀있는 다종다양한 지식은 바로 실천으로 옮기지 못하면 현실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오류를 만들어가는 업의 작용에 불과하다. 이에 반해 관조하는 지혜는 몸으로 실천하는 것이고 현실에 바로 적용되는 것이다.

등의 일상생활에서 나타나지 않고 머리 속에서만 존재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배우는 즉시 삶으로 나타나야 현실의 변화에 치열하게 대응하면서 일어나는 탐욕, 성냄, 어리석은 삶이 보시, 자비, 지혜의 삶으로 바뀌는 법이다. 따라서 출가자가 계행 등의 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佛法은 승가나 현실사회에서 그 의미를 상실하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서구 현대식 교육방법을 강원에도 도입하자는 말은 계행 등의 생활을 포기하자는 것이고, 이는 출가수행자로서 성직자로서의 자격을 포기하자는 얘기 밖에 되지 않는데 현응스님의 발언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강원시스템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교육과 계·정·혜 삼학의 수행으로 誘導하는 사람들이 부족하고, 올바르게 길러내지 못한 데서 문제가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므로 현응스님의 현대적 교육방법을 도입하자는 주장보다는 인재양성 등을 우선 과제를 삼아야 할 것이다. 강원의 수행체계가 생활 속에서 가장 바람직한 삶을 구현하는 생활임을 인식하지 못하고서 강원에게 대해서 격려하고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비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현대적 교육방법의 도입을 주장하시는 스님들이 예불, 공양, 간경 등을 하면서 정진하신다면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그런 생활 속에서 넘쳐흐르는 것을 느끼지 못하지는 않을 것이다. 예불, 공양, 간경하는 그 자체가 승려의 수행임을 자각해야 한다. 수행적 입장에서 보면 현대적 서양의 교육방법은 지식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 현대적 교육방법의 도입을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자세히 논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4) 지식을 지혜로 전환해야 할 이유

(1) 교학을 수단으로 깨침을 지향하는 것이 공부의 길이다.

1

공부의 주제가 마음에 있는 이상 이 마음을 깨

닫기 위한 방법은 수행일 수밖에 없다. 수행만이 공부해 나가는 올바른 방향이자 길인 것이다. 여타의 다른 길은 없다. 현대 서구식 교육은 이론학습에 지식습득이 전부이므로 수행과 거리가 멀다. 수행이란 언어문자를 떠나고 생각以前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이다. 수행을 통해서만 僧伽가 추구하는 上求菩提 下化衆生은 가능하다. 菩提는 언어문자나 생각이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중생구제에 언어문자라는 수단을 사용할 수는 있다. 그러나 언어문자상의 知識차원으로는 진정한 중생의 고통을 구제할 수는 없다. 고통은 지식이 아니기 때문이다. 禪定과 智慧를 바탕으로 한 慈悲心이 아니면 안된다. 따라서 대승에서는 중생을 구제하는 것으로 자신의 선정과 지혜를 개발하는 것으로(上求菩提) 승화시킨다. 중생을 구제하려면 큰마음과 대자비심을 일으켜야 하기 때문에 자신의 작은마음은 동시에 사라질 수밖에 없다. 동시에 구제받는 중생의 입장에서 본다면 상대의 큰마음과 자비심의 인도로 중생자신의 고통을 구제받게 되는 것이다.

이는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길이 곧 수행임을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수행이 왜 깨달음을 구하고 중생을 구제하는 공부의 올바른 방향이며 길인가? 깨달음을 구하거나 중생구제하는 일은 불교의 사상이나 철학을 배운다고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지식의 습득에 불과하여 한계에 부딪치게 되므로, 오로지 교법의 가르침에 따라 수행하여 깨달음을 구하고 중생을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것만이 올바른 길이 되는 것이다. 불교의 사상, 철학 등을 아무리 잘 배운다해도 그 지식은 본인의 몸 상태나 감정 등의 마음 상태, 또는 주위 환경 조건에 따라 바뀌고 흔들리게 되므로, 병이나 生死의 갈림길에 들어선 절박한 상황에 처했을 때, 위기극복의 능력을 발휘하기는 어렵다.

2

왜 지식은 몸상태나 감정 등 마음 상태, 주위의 분위기나 환경에 따라 바뀔 수밖에 없는가? 또 병이나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들어선 절박한 상황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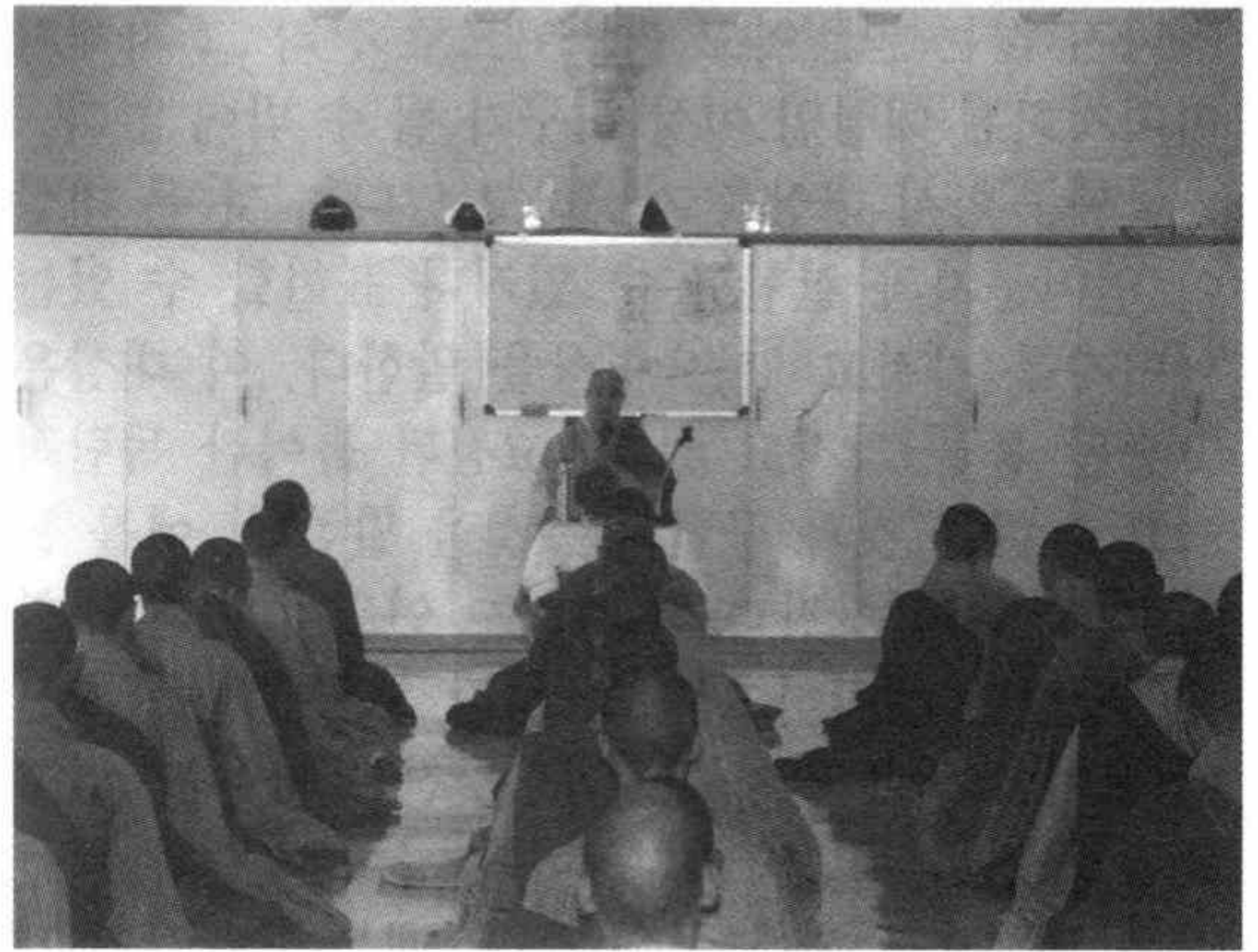
처해질 때, 위기극복의 능력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이유는 무엇인가? 사상이나 철학 등 모든 지식은 생각의 범주에 속한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생각이란 의식(意識)이 법경(法境)을 상대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분별하고 생각하는 마음은 생각의 세계이며 의식(意識)의 세계이다. 계속 상대하고 있는 한 생각은 끊임없이 일어난다.

따라서 법경을 상대하지 않을 때에야 비로소 의식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생각도 없게 된다.

그럼 생각의 특성을 정리해 보자. 생각의 특성은 ① 몸 밖이 아닌 마음 안의 대상을 인식한다는 것. ② 항시 대상을 겨냥하고 있다는 것. ③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 ④ 기억하는 것. ⑤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 ⑥ 변화하더라도 같은 이미지를 계속 복제하는 것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몸 밖이 아닌 마음 안의 대상을 인식한다는 것'은 흔히 대상이라면 몸 밖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마음 안에도 대상이 있다는 것이다. 마음 안의 대상이란 몸 밖의 대상으로부터 표상(表象)된 것을 말한다. 감각기관에 포착된 일차적 대상이 아니라 일차적 대상이 마음에 나타난 이 이차적 대상이 의식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눈앞에 찾잔이 없어도 그 찾잔을 떠올릴 수 있는 映像力도 대상이 된다. 실재 사물을 映像化해서 실재 사물과 같이 描寫하며, 또 실재하지 않는 대상도 想像力으로 영상화시켜 묘사해 내기도 하는 능력에 의하여 나타난 찾잔도 마음에 나타난 표상이 되므로 의식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대상은 모두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개념화된 것을 말하는데, 여기에서 의식이 개념화된 대상을 인식하는 그것이 바로 생각인 것이다. 곧 생각의 특성은 실재의 사물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는 데에 있다. 때문에 이 대상이 참인지 거짓인지 반드시 검증해야 한다. 눈에 보이는 실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 검증 방법은 논리적이어야만 하고, 또 그 논리는 실재의 사물과 대조해서 확인할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몸 밖의 대상은 우리의 마음에 투영되고 우리의 마음은 그 투영된 사물을 인식하게 되므로 마음에 투영시킨 대상이 몸밖에 존재한다는 認識論으로 설명하지만 因明이나 唯識에서는



그 반대의 가르침을 말하고 있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인식의 대상인 표상은 몸밖의 대상으로부터 투영된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마음 안에 있는 대상이 밖으로 투영되어 그 투영된 대상이 마치 몸 밖에 있는 것같이 인식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마음 안의 대상도 밖에서 투영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몸밖의 사물을 만지면 감촉이 느껴지고 보여지고 소리가 들리는 것이 분명한데 어떻게 밖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는가? 먼저 사물의 실체를 관찰해 보자. 사물은 無常하여 아주 빠른 속도로 변한다. 그러나 우리 눈에는 어제 본 것이나 오늘 본 사물이나 변하지 않은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즉 사물은 일정한 모양이나 실체가 없지만 우리들 마음이 독립되어 있고 고정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는 형상이 외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창조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임을 말해 주고 있다.

그렇다면 마음 안에 존재하는 의식의 대상은 허구가 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의식이 대상을 인식하는 생각도 또한 진실일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설령 생각하고 있는 대상이 외계의 대상과 일치한다고 검증되더라도 이 검증은 진실이 아닌 허구일 뿐이다. 외계 대상은 시간적으로 無常하므로 無相이 되지만 우리가 의식한 대상은 有相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각의 내용물은 가짜일 수밖에 없다.

그것이 불교의 진리라고 하더라도 생각에서 벗

어나지 않는 思想이고 哲學이므로 진리 그 자체가 이미지화된 대상인 이상 허구가 될 수 밖에 없다.

둘째, '항시 대상을 겨냥하고 있다는 것'은 대상이 언어문자와 결합할 수 있거나 표현할 수 있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형상을 말한다. 이 대상은 고정된 틀을 가지고 있다. 고정된 틀이란 독립적이므로 다른 것과 구별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책상 위에 책과 연필이 있다고 할 때, 책을 생각하고 연필을 생각하면 책은 책일 뿐이고 연필은 단지 연필뿐, 책은 연필이 될 수 없다. 이와 같이 책상과 연필을 같은 모양으로 생각할 수 없다. 때문에 생각의 겨냥하는 성격은 대상이 바뀌면 생각의 내용을 바뀌게 하므로 생각이 바뀔 때마다 앞의 생각과 뒤의 생각이 전혀 다르게 바뀐다. 따라서 모든 생각은 이러한 겨냥성 때문에 전체적이지 못하고 부분적이고 구별하는 분리적 성격을 가지게 된다. 때문에 생각의 겨냥하는 성격은 바로 思惟·推理·判斷 등의 작용인 것이다.

그러나 사유·추리·판단 등의 작용에 의한 진리의 파악은 진실일 수가 없다. 왜냐하면 대상의 고정된 틀로 생각하는 겨냥은 부분적이고 분리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것이다. 즉 모든 존재가 분리되어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너와 나, 즉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등의 관계를 분리시키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존재의 본질인 연기, 공, 법계, 중도 등으로 표현되는 진실은 전체적이고不二여서 나눌 수 없고 실체가 없어 추리하고 판단할 근거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겨냥하고 있는 성격인 생각으로서의 진리는 허구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대상을 겨냥하는 성질은 대상이 변하면 겨냥하고 있는 생각도 따라 대상에 맞는 생각으로 바뀌고, 또 대상이 변해도 겨냥의 성격은 그대로 있으나 대상이 없으면 그 생각은 사라지므로 생각된 진리도 사라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다. 따라서 생각에 의해 파악된 진리란 역시 허구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생각이 진리를 생각하고 그 진리의 힘에 의하여 생각의 부분적이고 분리적인 성향을 파괴

시키기 시작하면, 이 파괴시키는 생각은 생각자체를 역행하게 된다. 곧 생각의 겨냥하는 특성이 생각자신을 겨냥하게 되는데, 이것이 正念이고 一念으로 가는 회광반조이며 수행적 생각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되려면 겨냥을 생각자체에 겨냥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는 수행의 영역이다. 판단 추리를 넘어서는 것으로 학문의 영역을 넘어서게 되는 것이다.

셋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생각이라는 의식이 범경을 상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이 대상을 겨냥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그대로) 대상과 같은 이미지를 포함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예를 들어 사과를 생각하면 그 생각은 사과를 겨냥하고 있고 밥을 생각하면 그 생각은 밥을 겨냥하고 있듯이, 어떤 사물을 생각한다는 것은, 그 사물의 이미지가 실린 상태로 겨냥하는 것을 말한다.

만일 대상과 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 않는 생각이라면 그 생각은 대상을 모르는 것이 되며 겨냥할 수도 없게 되는 것이다. 즉 사과를 보아도 사과에 대한 이미지가 마음에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이 사과인줄 모르게 되고 상대방과 대화 중에만 생각을 하게 되면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를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형상이 눈 앞에 보이지 않는 것과 같다. 마찬가지로 대상을 생각한다는 것은 생각자체가 대상과 같은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만²⁾ 대상을 판단하고 추리하여 아는 것이 된다.

따라서 생각이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생각 그대로가 이미지라는 것이다. 이러한 성격을 가진 생각은 無相의 진리와는 상반되어 相應이 불가능하게 된다. 즉 같은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無相은 변할게 없지만 생각은 이미지이므로 변하고 바뀔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마치 香廬의 향연기는 형상을 가지고 있는 듯하여 실체를 주장하여 변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形相없는 허공을 만나면 변하지 않을 수 없어, 피어올라 형체가 와해되면서 사라져 없어지듯이 생각으로는 진리의 형상없음을 알 도리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성격의 생각은 無常이며 空인 諸法

實相의 진리와 상응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제법실상을 변화지 않는 주인에 비유한다면 생각은 변하므로 객과 같이 변뇌일 뿐이다. 따라서 생각된 진리란 그 생각이 바뀌면 그 진리도 사라지므로 허망하지 않을 수 없다.

넷째, '기억하는 것'이란 생각이 이미지를 가지고 있음을 말한다. 또 이 생각이 과거의 일이나 미래의 것이나 현재를 왕래하면서 기억되는 것은 생각이 겨냥하고 있는 대상이 現前에 없고 마음 속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마음이 창조적으로 형상을 만들어내므로 생각이 일어나고 보고 듣는 등 모든 경험이 씨앗(種子)으로 阿賴耶마음에 흡수되고 흡수된 종자가 생각으로 현행하여 떠오르는 것이다. 이는 어릴 때의 일이 추억되거나 어제의 일이 기억되는 경험을 통해 쉽게 알 수 있다.

또 미래의 일을 예상하는 것도 과거의 기억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생각자체는 현재이지만 생각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과거나 미래의 것이 된다. 생각자체가 현재가 된다는 것은 그것이 끊임없이 변하는 無形이기 때문이다.³⁾ 따라서 생각은 過去을 想起하는 작용이며 未來을 豫想하는 작용인데 반하여, 空 등의 진리는 형상이 없으므로 현재 이 순간만이 존재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현재 이 순간이란 말도 오히려 맞지 않는다. 또한 형상이 없음은 마치 허공과 같아 생도 멸도 없으므로 無時間 無空間이 된다. 이는 생각의 미래지향적이고 과거지향적인 성격과 맞지 않으므로 생각으로 범주화된 제반 불교의 사상이나 철학 등은 역시 허구일 수밖에 없다.

다섯째,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으로 생각이 변해간다는 것은 눈만 감아도 알 수 있다. 형상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만나면 변하는 것은 형상뿐이다. 생각은 이미지 곧 형상이므로 변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생각이 이미지인 이상 허공에 피어오르는 향연기와 같은 운명이다. 생각이 끊임없이 변하는

것을 볼 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형상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란 마음이다. 따라서 《金剛經》에서 설함과 같이 過去心不可得이요 現在心不可得이요 未來心不可得이다. 그러므로 생멸하는 생각은 不生不滅하는 진리와 만날래야 만날 수 없다. 이와 같이 생각된 불교의 모든 정보는 역시 허구일 수밖에 없다. 그 정보가 불생멸의 진리라하더라도 생멸하는 생각에 속해 있는 이상 생각따라 사라지는 것이다. 허구라는 것은 실재적 고통의 삶에서 해탈의 삶으로의 변화에는 별 도움을 주지 못한다.

여섯째, '변화하더라도 같은 이미지를 계속 복제하는 것'이라는 것은 마치 대보름날에 쥘불놀이를 할 때 일어나는 현상과 같다고 볼 수 있다. 깡통에 불을 붙여 빙글빙글 힘차게 돌리면 둥글게 불의 고리가 보인다. 그러나 그 불은 한 時點과 한 점이라는 공간에 있을 뿐이다. 다른 시점으로 옮겨지면 그 옮긴 점에 있다. 때문에 그런 불꽃의 고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틈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의 고리로 보이듯이, 생각이라는 것 또한 엄청난 스피드로 움직인다. 그 빠름이 하나로 연결되어 고리가 생기는 것 같이 착각을 낳게 된다.

따라서 생각이 빠르게 움직이면서 같은 이미지로 계속 복제해서 하나의 고리를 형성하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이와 같이 생각의 복제성격 때문에 여러 가지 고통이 일어나는데 이는 자신 속에 변하지 않는 고정불멸의 自我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에 원인이 있다. 자아를 세우는 삶에서는 늘 상대와의 차별이 일어나 열등의식이나 우월의식을 가지게 되어 소유와 투쟁 등의 괴로운 삶이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어릴 때의 자신과 십년이나 이십년 후의 자신을 동일시한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이는 어릴 때의 자아가 쥘불의 고리와 같이 계속 존재

2) 대상도 相, 생각도 相, 이 두가지 상은 닮은 꼴이고 因明에서는 이를 二相性이라고 한다.

3) 늘 현재가 되려면 변하는 것이 없어야 한다. 변하는 것이 없는 것은 과거나 미래가 없다. 생각자체는 변하는 것이므로 실체가 없다. 실체가 없는 것은 변화가 없기 때문에 늘 현재일 뿐이다. 따라서 생각자체를 현재라고 하는 이유는 생각자체의 無實體空 때문이다.



내부적인 마음상태나 외부환경의 변화에 따라 흔들리고 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신과 남의 괴로움을 제거해 줄 수 있는 힘은 얻을 수는 없는 것이다. 도리어 괴로움만 증장시킬 뿐이다. 따라서 진리와 상응할 수 있는 바탕은 선정이고 진리와 상응하는 마음은 지혜뿐이다. 知識은 형상에 매인 갖가지 서로 다른 앎이지만, 그에 반해서 그 형상이 無常하여 無實體의 一相인 無相함을 아는 것이 바로 般若智慧다. 이것이 흔들림없는 하나의 앎⁴⁾ 인 것이다. 선정과 지혜의 개발은 철저한 계율을 지키는 것을 기본으로 하기때문에 늘 자신과 남을 관조하는 수행이 전제되어야만 한다.

하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그것은 착각일 뿐이다.

그러나 짚볼깡통을 느리게 돌리면 그 고리가 존재하지 않는 허상임을 알 수 있듯이, 사고의 운동을 느린 속도로 떨어뜨려 빨리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면 생각에 틈이 보이게 되고, 그것들을 하나로 연결하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간파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방법은 수행상 계율을 지켜 생각을 절제시키고 자신을 늘 회광반조하면 마음의 고요함이 생기는데, 이 禪定은 마치 허공과 같이 고요하여 생각의 흐름이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어 생각과 생각의 고리가 사라지면서 그 사이에 빈 공간이 생기게 됨과 같다. 따라서 자아라는 생각의 고리가 사라지면서 고정된 자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되는 것이다. 이를 미루어 볼 때 복제성향의 생각은 괴로움의 삶의 모습이므로 진리와는 거리가 먼 것임을 알 수 있다.

3

이제까지 생각의 특성을 살펴본 바와 같이 생각은 본질적으로 진리와 상응할 수 없다. 불교를 사상화 철학화하여 기억하고 오래도록 복제해 본들,

왜냐하면 마음의 고요함인 선정이라는 場을 통해서 緣起라는 진리가 나타나게 되고 이와 동시에 마음의 깨어남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경에서도 확연히 드러나고 있는 사실이다. 'Ud na(自說經)⁵⁾ 를 보면 깨달음에 대한 인식이 분명해진다.

이 경전은 8품 80개의 경구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제일품 보리품(菩提品)에서 깨달음에 대한 귀중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 품에서는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좌선에 들어가 ① '깨달아 가는 과정' 과 ② '깨닫는 순간', 그리고 ③ '깨침의 체험 구조' 를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다.

첫째는 깨달음의 과정으로 우루벨라의 네란자라 강가의 보리수 아래에 결가부좌 하신 채 7일간 해탈의 황홀감을 즐기신 후 선정에서 일어나 초저녁, 자정, 새벽녘에 각기 십이연기법을 順觀(順觀)과 逆觀(逆觀)을 통하여 보시고 괴로움의 일어남과 없어짐의 이치를 노래하신다.

둘째, 우다나란 깨달음의 순간을 노래한 것으로 말하자면 법열(法悅)의 노래라고 할 수 있다. 질문하는 자 없이 부처님 스스로 설한 경전이라는 의미에서 '자설경(自說經)' 이라고 번역되기도 한다. 마치 기름과 물이 많으면 넘치는 것과 같이 강

4) 원효스님은 《涅槃經宗要》에서 반야지혜를 不滅이라고 했다.
5) 팔리 경전 가운데 小部(Khuddaka nik ya)의 제3경전이다.

한 감정에 자신을 억누를 수 없어 흘러 넘쳐 나오는 떨림의 소리이다. 이런 감정이 넘쳐날 때 마음 안에만 간직할 수 없게 되어 누가 받아들이든지 상관없이 언어로 터져 나오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장로(長老)들의 법열의 노래를 '사자후(獅子吼)'라고 부르는 것과는 다름을 주의해야 한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의 순간을 노래한 초야(初夜)의 계송은 다음과 같다.

“[실로 열심히 선정(禪定)에 들어 있는 바라문에게진리가 현현(顯現:p tubhavanti 하게 될 때, 그 때 그의 모든 의심은 없어진다] 라고 하는 것은 그가 연기(緣起)의 법(法)을 깨달았기(paj n ti) 때문에.”

셋째, 이 우다나의 계송(偈頌)은 깨달음의 근원적 체험의 기본구조(基本構造)를 보여준다. 이 경구를 살펴보면 존재가 법으로써 나타날 때 동시에 <깨달았기 때문에>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 선정에서 깨달음이 일어남을 말해 주고있다. 그러므로 선정에 의해서 진리가 나타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선정은 깨달음의 마당이 되며, 또 이 우다나는 十二緣起의 順觀과 逆觀을 통해서 읊으신 것이므로 선정의 장을 통해서 나타난 진리가 緣起임이 관조(觀照)되어진 것임을 말한다. 말하자면 관조와 진리가 상응함에는 선정이 장이 되고 이 선정의 장을 통한 관조는 제법이 연기함을 깨달은 것이 되므로 이 경전에서의 깨달음은 관조 즉 반야가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깨달음은 무엇인가? 이 경전을 통해 본다면 연기의 진리란 땅이나 하늘, 산, 바다, 나무 등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선정이라는 마음에서만 나타나며 이와 동시에 마음의 깨어남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곧 깨달음과 모든 존재의 實相(眞理)인 연기법이 불이(不二)라는 사실을 말해 준다. 따라서 '마음밖에 법이 없고 법밖에 마음이 없는 것이다.' 라 한 것은 모든 불교 즉 초기 불교에서부터 선종(禪宗)에 이르기까지 모든 깨달음에 대한 기술은 바로 이 깨달음의 근원적 체험구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깨달음은 구원의 대상인 상대의 근기에 따라 명경지수와 같은 마음으로

비추어서 그에 맞는 방안을 알맞게 써서 구제한다. 그러므로 당연히 학문으로서의 불교보다 몸으로 구현하는 불교가 더 힘이 있는 것이다. 비유를 들자면 눈먼 장님들이 코끼리를 더듬어 만지고는 각기 알았던 사실을 종합하여 코끼리라고 유추할 수는 있지만 정확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도 끝내 코끼리의 진상을 모르는 無明 그 자체로 존재할 수 밖에 없는 것과 같다. 그러나 장님이 아닌 정상적인 눈을 가진 사람이 볼 때는 코끼리라고 정확하게 금방 알 수 있어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정확성이 결여되고 시간만 허비하는 것은 눈이 멀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에 다름아니다. 눈이 멀었기 때문에 코끼리를 더듬어 만진다는 것은 기존 학자들의 많은 지식을 동원하여 알려는 노력이고 또 새로운 지식을 얻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要點은 눈이 멀었다는 데에 있음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부처님을 눈이 열린 분이라고 한다. 문제는 불교의 이론학습만으로 과연 눈을 뜰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수행을 통하지 않는 이상 깨달음의 눈을 뜰 수 없다. 불교를 학문의 대상으로 하여 석사나 박사학위를 받고 학문적으로 대성하여 명예와 지위를 얻는다고 해도 말년에 '老人不修'라 감감하여 죽음의 그림자에 두려움을 느끼고 후회하게 되면 때는 이미 늦은 것이다. 자신의 눈뜸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남의 눈 또한 뜨게 하지 못했음을 그 때서야 알 것이다.

불교의 모든 教法은 禪修行을 통해서 나왔으며 선수행을 통해서 교법을 올바르게 알게 되고 마음이 깨어나게 되는 것이다. 물론 일방적으로 敎學의 학습을 부정할 수는 없다. 오히려 교학을 통하여 불교에 관한 많은 지식을 함양하는 것은 수행에 적잖은 도움을 준다. 물론 지식을 지혜로 전환한다는 조건에 한해서 하는 말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 지식은 한갓 쓸모없는 것이 된다. 따라서 진리를 知識으로 기억하고 대상화, 영상화하고 묘사하는 생각은 眞理의 無相을 장애하는 요인이 되지만 다른 면으로는 겨냥의 성격과 기억의 성격과 이미지를 영상화하는 성격이 자신의 마음을 觀照하여 진리를 깨치는 길을 열어주는 도구역할도 한다.

나의 저녁예불

일과(一顆)/치문

딱, 딱, 딱

5시 25분

저녁 공양을 마치고 가사 장삼을 수하고 큰방을 나서는 시간 시위는 벌써 아득하다. 하루가 다르게 짧아지는 해의 길이 만큼 겨울은 점점 더 깊어만 가고, 뭔지 모르게 가라앉은 기운은 숙연하기까지한데……. 여법히 허리와 목을 곧추세우고 우보호시(牛步虎視)의 틀에 몸을 끼워 넣지만 때는 겨울이라 장삼 깃은 좀 더 서고 차수한 손은 자꾸만 손목을 더듬는다. 본능과 여법 사이에서 잠시 고민하다가 다시 우아한 자세로 걸음

을 옮긴다. 얼핏 하늘을 한 번 쳐다보지만 밤을 준비하는 색깔만 묻어나오고 매일 매일 평범치 않은 새로움으로 탄성을 자아내게 했던 지난 여름의 화려하면서도 다양했던 모습들은 이미 간 곳이 없다. 그것들은 하늘 속에서도, 한때 선명했던 나의 기억속에서도 이제는 희미해져 버렸다. 원래가 무상(無相)하고 무상(無常)하나 그래도 내년의 하늘에서 다시 그 닭은 꼴들을 기대하면서…….

어느덧 발걸음은 지장전을 거쳐 대웅전을 지난다. 상념은 고삐풀린 망아지처럼 산중으로 속

세로 사정없이 치달리며 몸과 마음은 이구동성으로 '각각등보체'를 외치고 있다. 승보전 앞에서 삼배를 올리고 왼쪽으로 꺾으면서 살짝 돌아보지만 나혼자, 뒤를 따르는 그림자는 아직 없다. 소리없는 안도의 한숨과 함께 이번 동안거 삼대 원력중, 其一의 목적지 관음전을 향해 조금은 마음 분주하게 걸음을 옮긴다. '삼대원력', 남들의 관점에서 볼때는 우스울지 모르지만 그래도 쉽지 않은 세가지 서원.

하나, 매일 새벽 예불시간에 무슨일이 있어도 108배를 한



다. 화장실을 다녀온 날에는 다리가 아프다. 왜! 대중치기 전까지 108배를 해야하는데 시간이 촉박하므로 바쁘고 아플 수밖에……. 그러므로, 쉽지 않은 서원이다.

하나, 관음전의 저녁예불 향, 초 공양은 내가 먼저 한다. 단, 저녁종성등의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때는 예외이다.

하나, 삼경 이후는 절대 큰방에서 나가지 않는다. 설사 수업 준비를 못해 뒤에 나가 무릎 꿇고 앉아 있는 한이 있더라도 결단코……. 다행히 아직까지는 대과(大過)없이 잘 지켜왔었다. 어쨌든 흐뭇한 마음으로 관음전에 들어서 초에 불을 사르고 향을 피울 때 쯤이면 대웅전의 금고(金鼓)소리가 아련하게 귀에

들어오고, 이어 문을 나설 무렵이면 학인대회 우승을 자랑하는 우리 스님네의 범고 소리가 山寺의 고요를 깨뜨리며 조계산 자락을 휘감기 시작한다. 관음전 뒤편으로 돌면 송광사 예불에 등장하는 '원력수생 중흥조도 해동불일 보조국사(願力受生 重興祖道 海東佛日 普照國師)'의 주인공이신 보조스님의 사리가 안치된 감로탑이 서있는 조그만 언덕이 나타난다. 한칸 한칸 밟는 발 끝마다 힘을 주어 계단을 올라서면 그곳은 바로 '전망 좋은 곳', 삼배를 드리고 돌아서면 어슴푸레 해 밝음이 남아있는 서쪽으로 有가 아니라 存在하는 거울의 밝음처럼 전에도 존재했었고, 앞으로도 항상 그렇게 그 자리에서 존재할

모후산이 매번 다른 모습으로 그 신비스러운 자태를 드러내고 있다. 원편으로는 아직도 장작을 때며 고집스레 과거를 살고 있는 정혜결사(定慧結事)의 산실인 수선사에서, 고향의 향기를 전하는 하얀 연기가 은근히 코를 자극한다. 한숨 크게 들이쉬고 다시 주위를 돌아보면 법당들은 저마다 머리에 희끗 희끗 잔설들을 이고 있고, 산등성이엔 촘촘히 들어선 험벗은 나무들 사이로 잿빛 하늘이 투영되어 쓸쓸한 겨울 풍경을 느끼게 한다. 그리고 한자(一尺)쯤 솟은 오직 하나의 별은 홀로 외롭고, 그러나 한편으론 육근(六根)을 자극하는 이 모든 정경들이 한가로우면서 조용하게, 그리고 정겹게 다가온다.

나는 이 모든 풍경들을 가슴에 새기고 대웅보전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대웅보전에서 의장엄한 염불은 내가 부처님의 제자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나도 부처님처럼 훌륭하고 멋지게 살아보리라 다짐한다. 부디 나의 바람이 헛되지 않기를 부처님앞에 서원한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IMF시대와 수행

정산(定山)/치문

요즘 우리 나라는 IMF 시대라고 한다. 여러 기업들이 부도나고 경제력 침체로 급기야 나라 경제가 마비되어 IMF(국제통화기금)에서 긴급 자금지원을 받게 되어버렸다. 나라의 경제주권이 상실되고 나라경제가 IMF에 의해서 끌려 다니는 처지가 되어 버린 것이다. 우리네 스님들은 山寺에 살다보니 바깥 소식을 거의 알지 못하고 지내다가 어느 날 대기업들이 하나, 둘씩 쓰러지고 증시가 침체되고 환율이 폭등하는 등 순식간에 경제가 파탄에 이르는 소식을 듣고 아연실색하고 나라가 큰 어려움에 처해진 것을 공감했다. 출가한지 얼마되지 않아서 그런지 절실하게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이로 인해 많은 실직

자들이 생길 것으로 염려된다. 이것이 올림픽이후 삼폐인을 일찍 터뜨린 과보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 이것은 어느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과오가 아니겠는가 반성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사회의 경제 불황으로 인해 송광사 및 여러 사찰에서도 종전보다 더 절약하는 생활을 하고 있다. 사회가 어려워 우리 승가에서도 그 어려움을 나누고자 물 한 방울, 전기 한 등, 기름 한 방울이라도 아껴 쓰고자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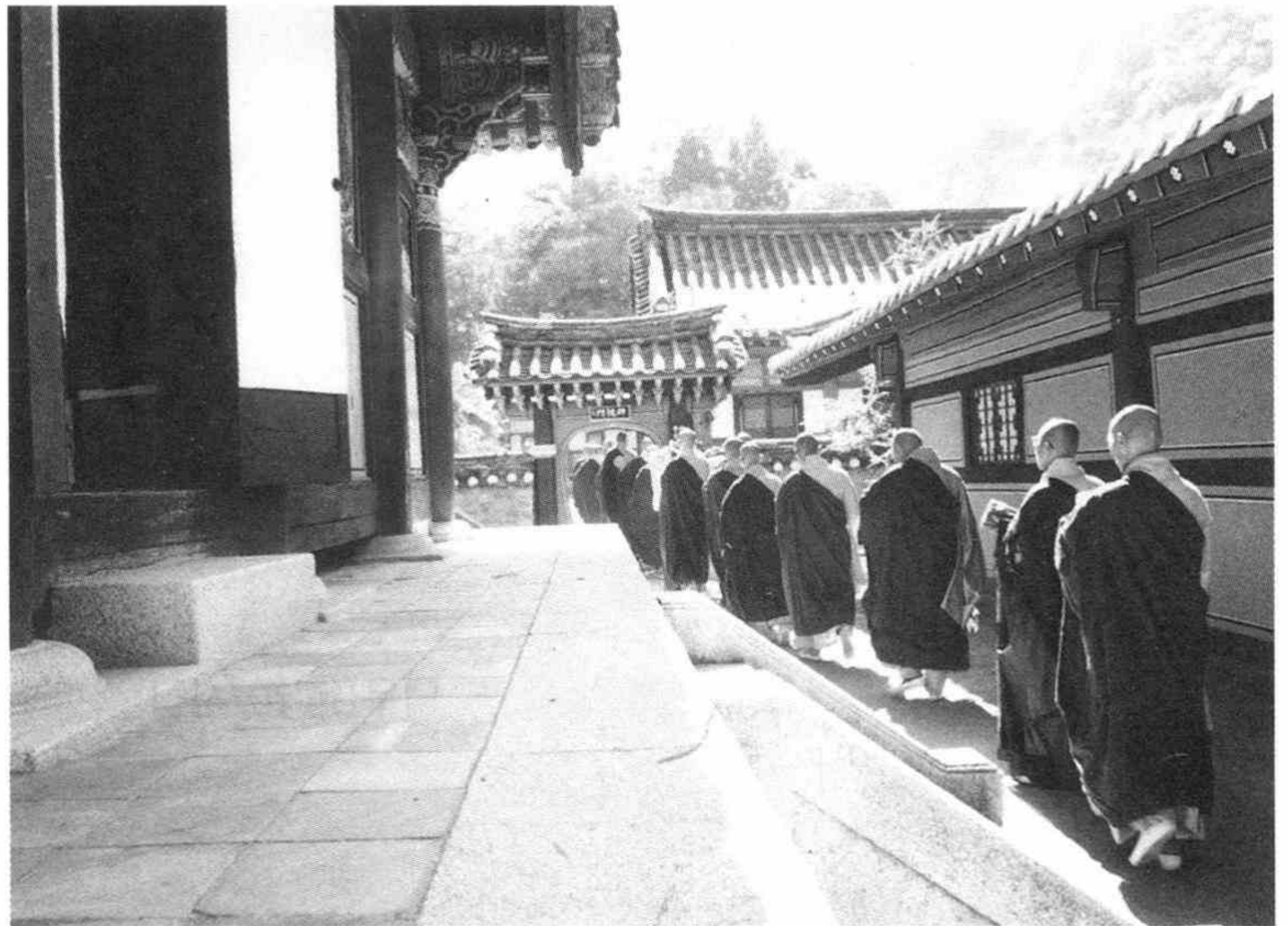
사회가 어려운데 어찌 수행자인 승려들이 편하게 생활 할 수 있겠는가? 내가 처음 출가해서 느낀 바로도 물질적으로 그리 부족함을 못 느낀 것 같다. 출가 수행하는 것이 편하게 먹고 살

자는 것이 아니기에 스님들의 절약하는 생활은 당연한 이치일 것이다. 편하면 편한 만큼 수행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리라.

수행자다운 모습이란, 검소하고, 겸손하고, 계행을 잘 지키는 것일 것이다. 내가 쓰는 모든 물건은 청정한 시주물이니 시주물 쓰기를 무섭게 알아서 항상 아껴써야 할 것이고, 시주자 은혜의 중함을 알아서 조심히 써야 할 것이다. 또 항상 자신을 돌아보아 자만하지 않아서 모든 행을 겸손히 위의있게 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회가 어려울수록 사회에서는 수행자를 더욱 의지하기 마련이다. 그런 우리 수행자들이 방탕하게 생활하면 사람들의 불신으로 우리 자신의

쇠멸을 초래하는 것이다. 모름지기 어려울 때나 편할 때나 부처님의 말씀대로 정진하여 사회로부터의 모범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하지 않으면, 조선시대와 같이 승려들이 부역하게 되는 일이 다시 생기지 않으리라 말할 수 있겠는가? 이와 같이 사회가 어려울 때 우리 승려는 각자 자신의 수행에 정진하여 속히 깨달음을 성취하여(上求菩提) 사회에 환원해야(下化衆生) 할 것이요. 중생들에게 힘이 되어주어서 정신적인 지도자가 되어야 할 것이요. 우리 나라가 정신적 선진국으로 가는 선봉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중생들 또한 각자 자리한 위치에 따라서 맡은 일에 충실히 해야 할 것이요. 나보다는 남을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매사(每事)에 충실히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수행이란, 출가 수행자만이 하는 것이 아니다. 재가(在家) 수행자란 말이 있다. 재가에서도 수행을 꾸준히 하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말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출가 수행자와 재가 수행자가 함께 수행 정진해야 할 때이다. 출가 수행자와 재가 수행자가 같이 하는 수행으로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 일상 생활에서의 수행이다. 일상생활에서 수행이 되지 않으면 다른 수행을 잘 할 수 없다. 예를 들면, 기본적인 인사 특히



어른에 대한 공경이다.

예전보다 어른 공경에 대한 생활 예절이 떨어진 것이 사실이다. 조상을 공경하지 않고는 내가 공경 받기를 바랄 수 없다. 우리 나라 사람 자랑거리 중의 하나가 '동방예의지국' 이었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질서 지키기이다. 질서 지키기란 위에서 말한 위계질서부터 교통질서 등 사회흐름에 대한 여러가지 질서가 있을 것이다. 질서가 실천되려면 먼저 양보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그 양보하는 마음이 바로 하심(下心)이다. 하심만큼 힘든 수행은 없을 정도로 하심 한다는 것이 어렵다. 이외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예의범절등을 지켰을 때 그것이 수행이 되고 우리 사회가 더욱 맑고 향기롭게 되어 갈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道'

가 어떤 이상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아는 '道'는 바로 일상 생활 속에 있고, 그것을 실천 함으로써 '道'를 통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한 민족이 함께 해야 할 수행이다. 우리 민족은 어려울 때 일수록 뭉치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 동안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에 물들은 마음을 씻어 버리고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한층 성숙된 선진 한국을 만들어보자.

선진국과 불국토는 우리 자신이 만들어 가는 것이다.

우리모두 화합하여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를 함장하여 기원하는 바이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공 생

덕우(德宇)/사집

우리가 생활하는 곳이면 어김 없이 그들은 창고나 헛간, 해우소, 특히, 먹을 거리가 가득한 별짚같은 데는 더욱 많다. 그들은 보통 땅굴을 파고 생활하지만, 헛간 같은데서는 집을 짓고 살기도 한다. 내가 행활하는 곳의 천장에서는 매일 그들의 뿔박질 소리가 들려 온다. 그러나, 어느 스님도 그들에 대해 짜증내거나 싫어하지 않는다. 나는 그들과의 특별한 인연을 쓰고자 한다.

내가 처음으로 백일기도를 할 때, 입제하고 며칠후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는 생쥐들이 법당에 나타났다. 그들은 목탁소리와 함께 나타나서 기도가 끝날 때 쫓으면 사라지곤 하였다. 나와 신도들

은 법당안에서 사는 그들 때문에 신경이 쓰여서 그들을 잡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생각하였다. 그렇지만 살생하지 않고 잡는데는 쥐틀 밖에는 없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법당 여러 곳에 쥐틀을 놓아 두었으나 그들이 얼마나 영리한지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미끼로 사용한 떡이 쥐틀 속에서 말라 까맣게 변하도록 그들은 법당안에 설치한 쥐틀을 교묘히 피해 다녔다.

그러다보니 나와 신도들은 기도시간에 분주하게 돌아 다니는 그들이 적지않게 미웠다. 입으로는 관세음보살 정근을 열심히 하면서도 눈은 그들의 움직임을 따라 다니는 것이었다. 하루는 그들

중 가장 시끄럽게 돌아 다니는 놈 하나가 신중단 아래 병풍 뒤쪽에 놓아둔 쥐틀 옆으로 접근하였는데 실수로 들어갔는지 쥐틀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다. 그러자 기도중이던 신도님들이 정근을 멈추고 갑자기 “와! 잡혔다”고 한마음으로 소리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잡힌게 아니라 그들이 다니기가 불편하였는지 옆으로 밀어서 넘어지면서 문이 닫히는 소리였던 것이다.

그런데, 그 말썽꾼들이 신기하게 모두 다 쫓겨나게 되었으니, 그 날은 기도가 회향하기 일주일 전쯤이었다. 법당안에는 뚜껑이 360도 회전하는 커다란 플라스틱 쓰레기통 2개가 상단 뒤쪽 벽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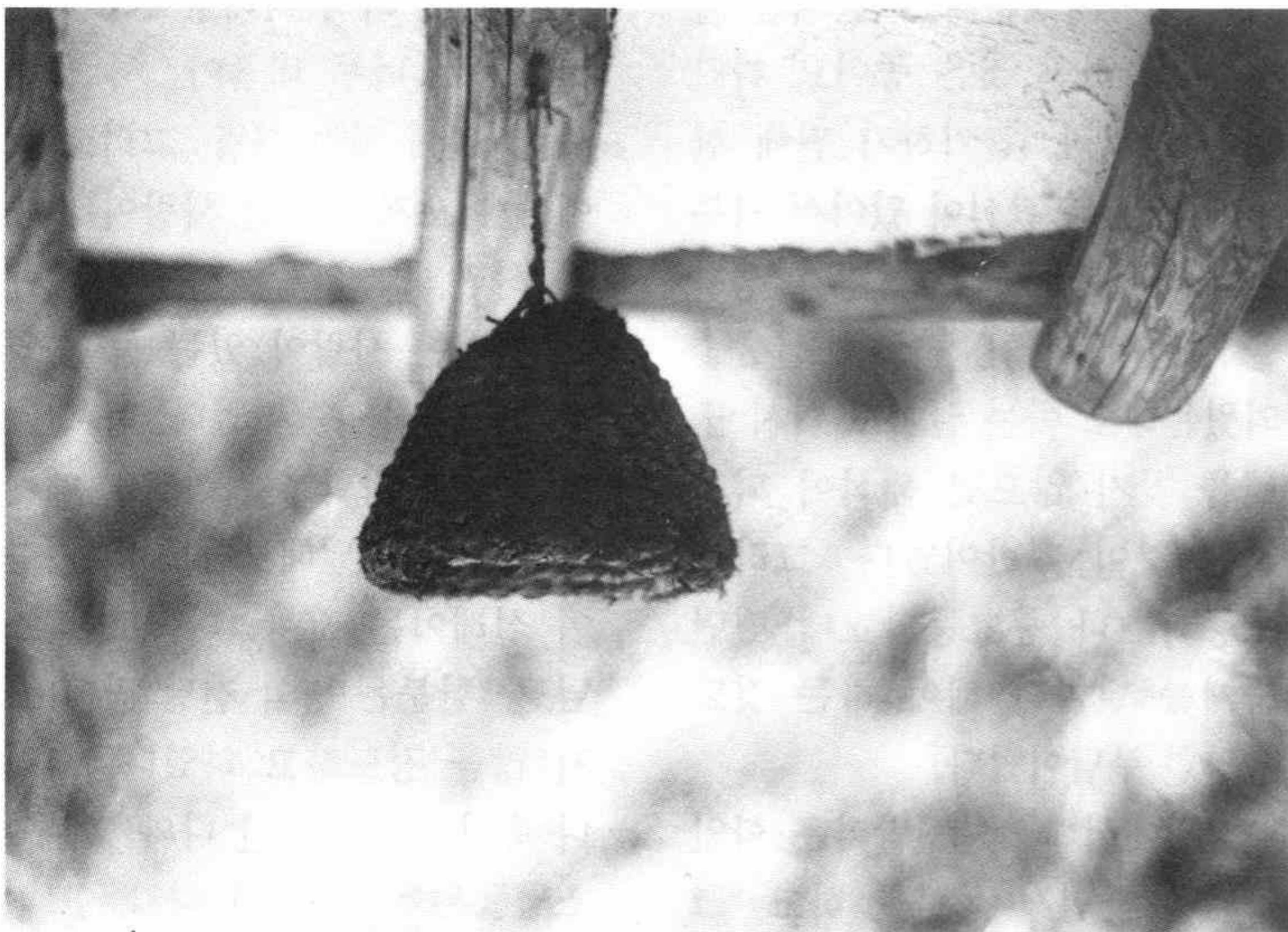
붙어 있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쓰고 남은 양초를 모으는 통이었는데, 자주 비우는 이가 없어 그 통은 항상 양초로 가득차 있었다. 누군가 전날 깨끗이 비워 텅 빈 상태였는데, 그날 밤 새끼로 보이는 생쥐 2마리가 뚜껑위에서 장난치고 놀다가 회전되는 뚜껑속으로 빠져버린 것이다. 아마도 통에 양초가 가득 차 있으리라 여기고 놀다가 그랬으리라. 플라스틱통의 미끄럽고 높은 벽이 그들에게는 커다란 함정이 되어 빠져 나오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것을 어떤 신도분이 발견하였지만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방법이 떠오르지 않아 그냥 두었는데, 다음날 어미인 듯한 생쥐와 또 다른 한 마리가 그 통에 빠져 모두 4마리로 늘어났다. 아마 새끼를 구하려다 같

이 갇힌 모양이었다. 시간은 흘러 기도를 회향하는 날, 나는 그들을 모두 차에 태워 절아래 마을 입구에 풀어 주고 돌아오는데, 그들은 도망도 가지 않고 나를 뵈히 쳐다보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황급히 그 곳을 떠나 왔다. 다음 날 천도재 준비 관계로 마을로 내려가다가 문득 그들이 궁금하여 차를 세우고 어제의 그 장소에 가보니 그들은 근처에 이름 없는 무덤 옆에서 모두 죽어 있었다. '그동안 통 속에 먹을 것을 꾸준히 넣어 주었는데 왜 갑자기 죽었을까?' 이런저런 생각에 나는 한동안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다가,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이미 굳어진 그들을 두손에 들고 차에 태워 내가 평소에 자주 포행다니다 보아둔 절 뒤쪽 양지 바른 곳

에 나란히 묻어 주었다. 그리고, 다음 날 어느 신도분의 천도재 때, 나는 범주스님 옆에서 3시간 동안 '바라지' 하면서 그들에게도 극락왕생을 기원하며 간절히 기도해 주었다. 만약 이러한 공덕으로 그들이 수백생 아니 수천생을 뛰어 넘어 사람의 몸으로 환생한다면, 아마도 인연에 따라 내가 노스님이 되었을 쯤에 그들 중 누군가는 내앞에 나타나리라. 그러면, 나는 그들을 단박에 알아볼 수 있을까?

나는 지금 강원에 들어와 공부하고 있는데 쥐들과의 인연이 깊은지 내가 생활하는 지대방 주변에서는 쥐들이 매일 뽕박질하고, 짹짹거리며 다투는 소리를 듣는다. 배가 고픈 쥐들은 가끔은 지대방에 놓여 있는 음식을 살짝 훔쳐 먹고 쏘살같이 사라지곤 한다. 그러나, 어느 스님도 그들의 행위에 대해 짜증내거나 싫어하지 않는다. 그들과 우리들과의 관계를 알기 때문이다.

'그들은 바로 우리들의 또다른 모습이 아닐까!'



치문반 생활을 마치며

도빈(道彬)/치문

우리들이 출가를 하는 것은 모두 자신들의 확고한 신념에 의해서 일 것이다. 6개월 이상의 행자 생활과 기초 행자 교육을 마치고 사미계를 受持하면, 대부분 講院에 들어오게 된다. 남자들은 거의 군대를 갔다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단체 생활에 대한 경험이 있다. 강원에 들어와 대중 생활을 하다 보면, 軍생활을 다시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다. 나 또한 행자 교육을 마치고 사미계를 받은지 3일째 되는 날, 송광사 강원예 방부를 들었다. 송광사가 출가 본사라 강원 스님들의 사시는 모습을 행자 시절부터 스님들을 시봉하면서 늘 보아왔고, 또 그 동안 행자 생활을 통해서 몸에 익힌 습의들을 바탕으로 막내반 생활을 시작했다.

새벽 3시, 고요한 정적을 깨는 도량석 소리에, 우리들은 깊은 잠에서 깨어나 일제히 자신의 침구를 정리하고, 수각장에서 간단

하게 세면을 한후 대웅전으로 향한다. 종고루에서 들려오는 우렁찬 범고 소리가 온 산중에 울려 퍼진다. 일배 일배... 부지런히 부처님 전에 내 몸으로 지은 잘못된 업을 참회하고 나면, 이마에는 어느새 땀이 송글송글 맺히고, 흥미한 정신에서 깨어나 자신을 조용히 觀해 본다.

강원에 들어온 다음 날부터 수업이 시작되었는데, 치문책을 펼쳐 보니 하얀 것은 종이요 까만 것은 글자라. 출가하기 전에 한자에 조금은 관심이 있어서 기본한자 몇권은 보았고, 행자 생활을 하면서 初發心 自警文을 줄줄 외웠는데도 아는 글자도 다시 玉篇을 찾지 않으면 해석이 되지 않는 것이 태반이었다. 그리고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때 했던 숙제를 날마다 해야 하는 것도 상당한 부담이었다.

강원에서의 공부 방식은 학인 스님들이 먼저 석사를 하고, 그

다음에 강사 스님께서 내용 전반에 대해 설명해 주시는 방식이다. 철저히 준비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공부를 따라가기 힘든 체제로 되어 있다.

봄 산철이 하루하루 더해 갈수록 도반 스님들의 수도 늘어나 산철이 끝날 때 쯤에는 20여명이 되었다. 수가 늘어 나면서 특히 재미 있었던 일 중의 하나는, 휴식 시간이 되어 지대방에 모이면 지대방이 너무 비좁아, 서 있는 사람, 앉아 있는 사람, 그리고 아예 들어오지도 못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와중에서도 구석에 누워 자는 사람이 있는 등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봄 산철이 끝나고 방학이 가까워질 때에는 학교를 다닐때보다도 더 가슴이 설레이는 것이었다. 도반 스님 중 한분은 방학 전날 잠이 오지 않을 정도라고 하였다. 그러나 송광사가 본사인 나와 몇분의 스님들은 방학 중에 나갈 수 없

다는 것이었다. 이유인즉 사미계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밖에 나가면 아직 절 생활에도 익숙치 않은 상태에서 여러 가지 경계에 부딪혀 흔들린다는 것이었다. 도반들의 방학 나가는 것을 지켜 보면서 부러운 생각도 들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밖에 나가는 것이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다.

하안거가 시작되면서 몇 분의 도반 스님들이 강원을 떠났다. 떠난 스님들은 대부분 과도한 운력과 단체 생활에서 수반되는 딱딱한 분위기와 수업에 대한 부담감이 원인이 되었던 것 같다. 하안거가 시작 되면서 은사 스님 시봉 관계로 대중 스님들과 큰방 생활을 함께하지 못했다. 큰방 생활에 익숙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혼자 생활해야 하는 것이 조금은 서운했지만 은사 스님을 시봉하면서 공부하는 것에 위안을 삼았다. 은사 스님을 시봉하면서 배우고 느낀 점은, 모든 관점을 내 자신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은사 스님께 맞추어야 하는 것을 알았고, 자기 중심적이고 나태하게 살아온 나에게, 매사에 꼼꼼하고 철두철미하게 생활하시는 스님의 모습에서 많은 가르침을 받았다. 스스로를 돌아보아 경책하고 분발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수업도 봄 산철에 치문만 하던 것을 緇門, 四十二章經, 佛遺教經, 修心訣 등 일주일 내내 짹 짹



여진 일정 속에서 생활 하는 것에 대해 도반 스님들과 투덜투덜 하면서도, 우리들을 위해서 열심히 가르쳐 주시는 강사 스님들을 생각할 때면 너무나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한여름의 더위도 열심히 간경하는 나에게는 접근하지 못하고 떠나가 버렸다. 하안거 방학 때에는 속가 부모님들을 찾아 뵈었다. 아버님으로부터 대장부로 태어나 출가하여 승려가 되었으니, 열심히 공부하여 큰 스님이 되라는 말씀을 듣고 너무나 감사하였다. 그동안 아무 연락도 드리지 못해,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고 애타게 근심하셨을텐데도 일체 그러한 내색을 하지 않으시고, 오로지 몸 건강히 열심히 공부하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는 가슴이 찡해 눈물이 나왔다. 잦은 운력과 바쁜 행사 등으로 가을 산철은 금방 지나가

버렸다. 길고 긴 동안거가 시작 되면서 그 동안의 시자 소임을 마치고, 다시 큰방에서 대중생활을 하게 되었다.

이제 동안거도 반살림을 지나 해제일을 눈앞에 두고 있다. 20여일 정도만 지나면 사집반이 된다. 힘들고 짜증나고 괴롭게 느껴질 때도 많았지만, 그래도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한층 더 성숙해졌음을 느낀다.

강원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중들의 화합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비우고 또 비우는 下心의 자세와 밖으로 향해 치닫는 妄念을 끊임없이 안으로 돌이켜 나를 觀照해야 함을 배웠다.

이제 얼마남지 않은 치문반 생활을 도반 스님들과 무사히 회향하기를 바라며…….

어느 고3 어머니의 얘기

일대(日大)/사교

세간에서는 매년마다 치루어야 하는 홍역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대학 수학 능력 평가입니다. 이 수능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시험을 치루는 수험생과 학부모에게는 아주 절박한 심정으로 그것에 매달려 자신들을 옥죄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수능시험으로 인한 대학의 합격여부 그 사람의 전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모순되고 부조리하게 여겨지는 면도 있지만 사회현실에서는 당연한 논리와 제도로 받아들여지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저는 매주 토요일마다 순천에 있는 포교당에 학생회 법회를 보러 갑니다. 법회에 나오는 아이

들은 주로 고등학교 1.2 학년생 들입니다. 법회를 마치고 나면 그냥 보내기가 아쉬워 아이들을 돌려 세워 떡볶이 집으로 향합니다. 떡볶이 집으로 가기 전에는 빵이나 과일로 간식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데 공양주 보살님의 소개로 학교 근처에 신도님이 운영하시는 떡볶이집이 있음을 알고 부터서는 매주 마다 그 떡볶이 집에 가서 입맛에 따라 여러 가지 떡볶이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가게를 운영하는 신도님은 바쁜 가운데서도 매일 기도에 동참하는 열의와 신심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기

도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도 계셨겠지만, 특히 고3인 아들이 시험을 잘 치루어 원하는 대학에 들어 가기를 발원하고 계셨습니다.

요즘 도심 근처에 있는 절은 입시 100일 기도를 많이 합니다. 매일 빠지지 않고, 자녀들을 위한 부모님의 기도와 발원은 100일 동안 이어집니다. 기도와 발원을 오롯이 수행하면 부모님의 마음도 밝아지고 맑아질 뿐 아니라 자녀의 장내도 또한 밝아지고 맑아질 것입니다.

아이들은 저절로 공부에 열중하게 되고 순종하는 아이로 변해갈 것입니다. 원래 아이들에게는

변할 마음이 없지만, 시험이라는 강박관념이 아이들을 멍들게 하고 주눅들게 하여 마음에 병이 생기게 합니다. 그러다보니 그들은 매사에 짜증을 내고 가족들에게 큰소리치며 고3 생활을 해갑니다. 아이는 아이대로 힘들고, 가족들은 그들이 혹 마음의 상처라도 받을까 조심조심하여 아무소리도 못하고 과잉보호를 하게 됩니다. 이러다보니 비록 부모와 자식지간이지만 서로간에는 살얼음 판을 걸어가는 느낌입니다. 아이들은 대부분 매일 밤 11시가 넘어야 집에 들어옵니다. 그러다보니 부모님과 대화할 시간도 없고 혼자 그냥 그렇게 공부하는 기계처럼 생활은 반복되고 단조로움으로 이어집니다. 이럴 때 가장 답답하고 마음을 조리며 사는 분들은 바로 부모님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생활속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물질적으로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안정을 얻고 풍요로움을 얻을 수 있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훨씬 더 중요할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간의 대화의 단절속에서 관심을 밖으로 표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와 발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시험보다도

오히려 더 중요한 일 인지도 모릅니다. 단지 우리의 아이들이 시험에 낙방하더라도 기도한 공덕으로 자녀들의 심성과 행동은 아름다워 질것입니다. 마음이 아



름다우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마음이 아름다우면 곧 부처라고 경전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떡볶이집 신도님은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할아버지 되는 분은 몇 달 전부터 중풍이 와서 사지를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옆친데 옆친 격으로 할머니는 치매증상이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 뒷바라지 하라, 부모님 수발

들라, 그야말로 눈코 뜰새 없이 바쁜 가운데서도 이 발원과 서원을 놓지 않으시고 열심히 기도 정진 하셨던 것입니다.

드디어 수능시험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날 아침, 아이는 옷을 단정히 차려 입고 집을 나서기전, 중풍으로 누워 계시는 할아버지와 치매를 앓고 있는 할머니를 큰방에 모셔놓고 큰절을 올리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잘치고 오겠다고 인사를 하더랍니다. 그 보살님은 아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말로 표현 할 수 없는 가슴벅참을 맛보았다고 합니다. 감격과 감동을 자녀의 모습 속에서 보고 느끼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시대에 좋은 본보기를 들어서 저의 가슴속에서도 잔잔한 감동이 흘렀습니다. 이

렇게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 간다면 우리나라의 장래는 밝고 맑아지리라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후에 들은 소식으로는 그 신도님의 자녀는 부모님의 간절한 염원에 힘입어 모대학 건축학과에 특차로 합격했다고 합니다. 이 부모님의 절실하고 절실한 사랑이 부처님의 대자대비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첫 눈

혜성(慧星)/사미울의

며칠전 눈이 왔다. 이 곳 송광사는 남쪽이라 눈이 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예상을 깨고 많은 눈이 내렸다. 조용한 산사의 눈은 참으로 포근한 느낌을 안겨준다. 눈이 평평내리는 광경을 보면서 나의 시선은 산 너머로 향하고 생각은 초등학교 시절 과거로의 여행을 시작한다.

“형아! 형아! 눈이 내린다. 빨리 나와 봐” 방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나는 눈이 내린다는 소리에 밖으로 나왔다. “야! 함박눈이잖아. 썰매하고 스키를 만들자!” 곳간이며 선반이며 여기저기 뒤적거리며 톱, 망치, 못, 칼, 널빤지를 찾으러 분주하게 움직인다. 막내 동생은 형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고 들뜬 마음으로 “형아! 뭐 도와줄꺼 없어?” “응, 너는 가만 있어. 내가 다 알아서 할께” 내

가 초등학교 5학년, 막내동생은 겨우 일곱 살이다. 막내 동생은 내가 만드는 동안 신기하다는 표정, 좀 빨리 만들었으면 하는 조바심어린 표정, 같이 참여하여 만들어 보고 싶은 표정등으로 내 옆에 바짝 달라 붙어서 이것 저것 물어보기도 하고 만지작거리기도 한다. 푹푹, 삐걱, 탕탕. 서툰 솜씨로 썰매를 만들고 스키도 만들려고 분주하게 손발을 움직인다.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것은 막내뿐 아니라 우리집 애견 케리도 신기하다는 표정, 흐뭇하다는 표정으로 헛바닥을 길게 내밀고 헉헉거리고 있다. 세 시간 정도가 지났던가? 드디어 완성했지만 며칠 갖고 놀만한 썰매와 스키가 완성되자 막내의 얼굴에선 신기하고 기대섞인 웃음이 그칠 줄 모르고 있었고, 케리도 장난

섞인 투로 앞 발을 높이 들고 경경거린다.

오후 3시쯤 되자 눈이 많이 쌓였다. “형! 케리도 데려가자. 응?” “좋아!” 장갑을 끼고, 코트를 입고, 털장화를 신고, 모자를 쓴 우리 두 형제는 스키와 썰매를 어깨에 걸머지고 케리를 선봉장으로 씩씩한 걸음으로 뒷동산으로 향했다. 산이 절반쯤 개간되어 밭으로 되었는데, 꽤 경사도 지고 길이도 길어서 썰매나 스키타기에 좋아 보였다. 우리 두 형제가 첫 번째로 도착한 줄로 알았으나 이미 많은 아이들이 스키와 썰매타기에 열중이다. 썰매길과 스키길이 길게 나있다. 동생이 썰매를 잡는다. 그러나, 썰매길이 경사가 급하고, 중간중간 오목하고 볼록한 부분이 많아 위험하여 타기 어렵게 보였다. “야!

니가 타기는 너무 위험하니까 너는 구경만 해라!”

그 순간 동생의 얼굴은 빨갱게 상기되고 눈가에 이슬방울이 맺히고 목젓이 드러나 보일 정도로 입을 벌리고 대성통곡한다. “책임져! 책임져! 엄마한테 이를 거다. 와 앙……” 동생은 때를 쓰다가 울다가 하기를 몇 번 하자 지쳤는지 애견 케리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다. 썰매길 중간 중간에 오목하고 볼록한 부분이 있어서 이 곳을 통과 할 때면 기분만점이다. 몸의 중심을 잡으려고 몸을 숙였다, 젖혔다, 옆으로 기울였다가 하면서 시간가는 줄 모르고 썰매타기에 열중하였다. 가끔 데굴 데굴 구르기도 하고, 정해진 길을 벗어나 거름으로 쓸러고 조그맣게 구덩이를 파고 분노를 쌓아둔 곳에 쳐박히기도 한다. 얼마나 썰매타기에 열중했던가? 해는 서쪽 산으로 넘어가고 있었고 아이들도 하나 둘씩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나도 집으로 돌아가려고 썰매와 스키를 가지런히 모아놓고 옷을 살펴보니 옷은 거의 젖어있었고 분노퇴비가 묻어 고약한 냄새를 풍기고 있었다. 옷이 젖었는지 분노가 묻었는지 아랑곳하지 않고 즐기다가 이제서야 정신이 들면서 걱정이 앞섰다. 빨래거리가 하나 더 늘어난 것에 대한 어머니의

분노에 찬 모습이 눈앞에 어른거렸기 때문이었다. 처음 썰매타러 올 때와는 다른 맥빠진 모습으로 집으로 향했다.

“너 이리 오너라!” 아버지의 심상치 않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옷이 엉망이 된 것에 대한 호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아버지 앞으로 고개를 떨구고 나아갔다.

“오늘 네 동생에게 어떻게 대했냐? 명색이 형이 돼가지고 동생은 조금도 염두에 두지 않고 너 혼자만 썰매타고 놀았던 말이나? 형제간에 우애있게 지내라고 내가 늘 말했잖느냐! 이렇게 어려서부터 형제간 우애가 없으면 커서는 어떻겠느냐? 회초리 준비해서 들어오너라! “아버지의 불호령에 밖으로 나가 회초리 할 만한것(얇은 것)을 찾았으나 보이지 않았다. 왔다 갔다 주저하고 있는데 “빨리 가지고 오너라!” 아버지의 불호령이 재차 떨어졌다. 엉겁결에 낮에 썰매 만들던 곳으로 가보니 스키 만들고 남은 두 동강난 대나무 쪼가리가 눈에 띄었다. 좀 두꺼



웠으나 아버지가 재촉하는 바람에 들고 들어가는데 동생이 방문 앞에서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다. “어!……”

그런 일이 불과 몇 일 전의 일로 기억되건만 투정부리고 아양떨던 귀엽고 잘 생긴 막내 동생은 지금 25살의 건장한 청년으로 성장하였다. 한 이불속에서 장난치고 웃고 울고하면서 함께 하던 모습은 기억속에서만 희미하게 남아 있을뿐, 동생과 나는 이제는 부모 품을 벗어나 가는 길이 다르게 되었다. 정말 시간의 빠름은 세월의 무상함을 절실히 느끼게 한다. ‘뽕드득 뽕드득!’ 이 얼마만에 들어보는 (느껴보는) 추억의 소리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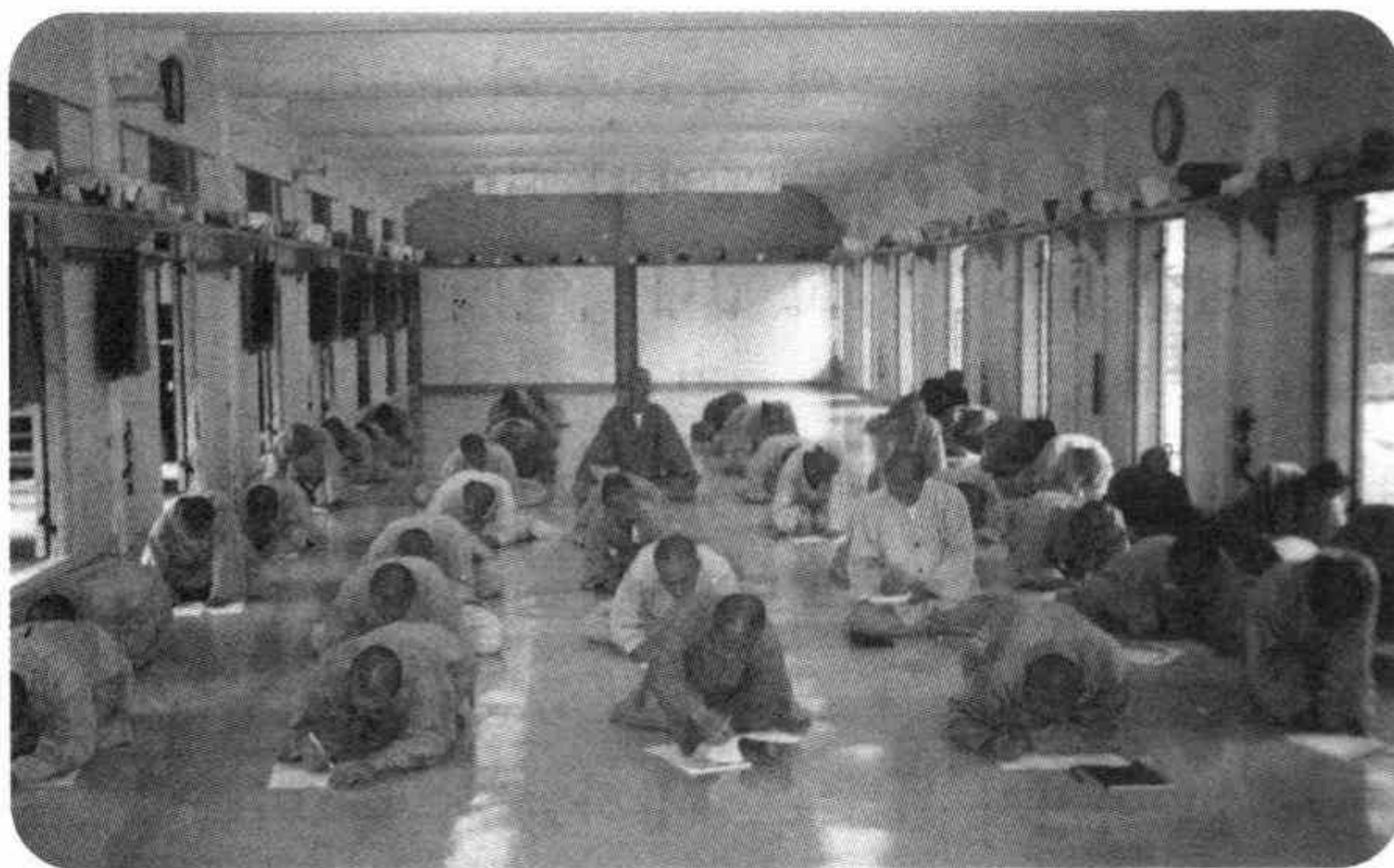
학보로 보는 강원소식

편집부



10월 26일 전국 학인대회 참석

대전의 중앙북교회관에서 개최한 전국 학인대회에 스님들 모두가 참여하여 각 분야에서 기량을 나타내었고, 스님들 서로간의 우의를 돈독히 하였다.



11월 2일 가을산철 시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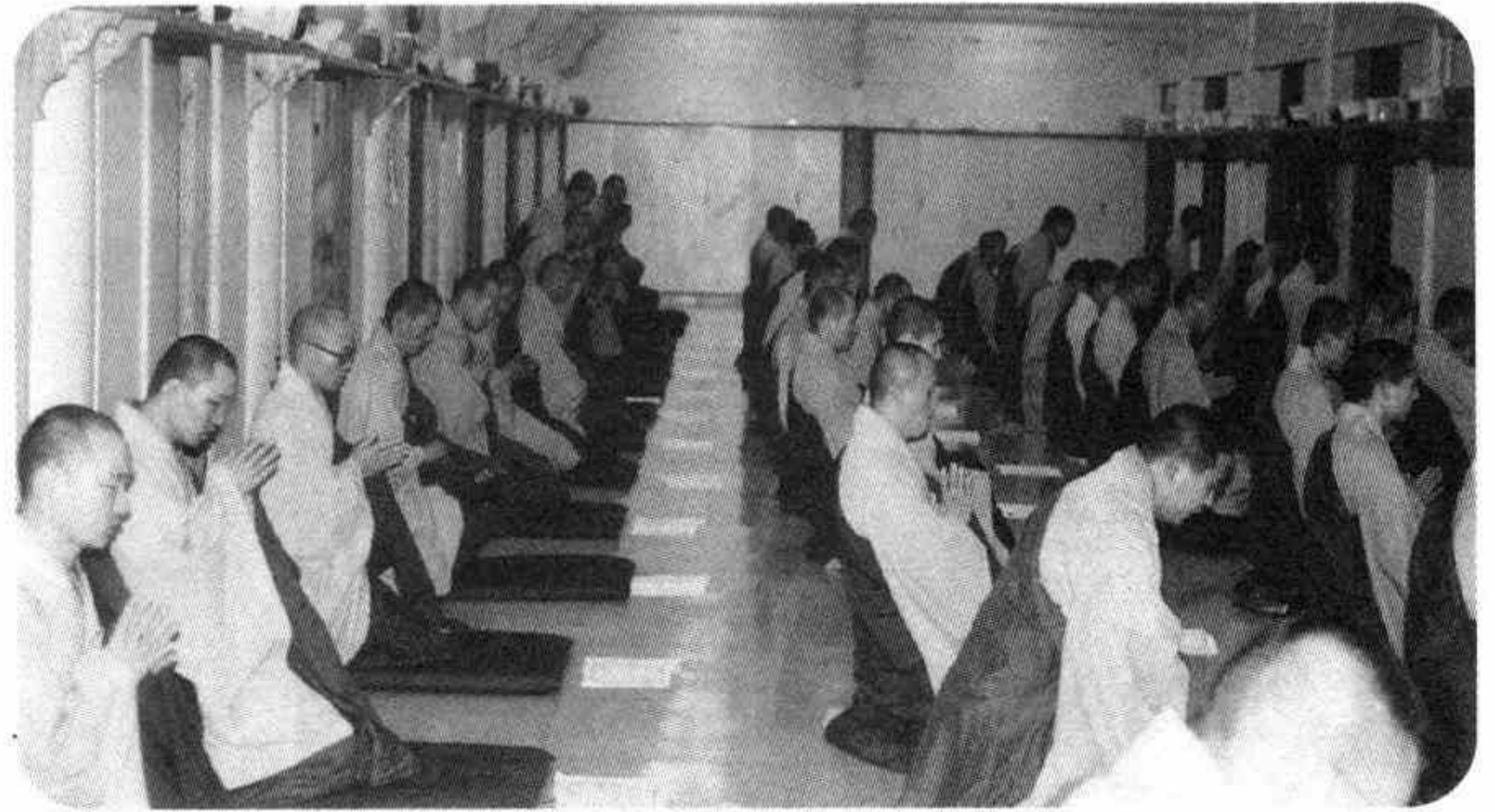
한철동안 수행정진을 전진하는 시험을 큰방에서 치루어 각자의 실력을 확인해보고, 용맹정진의 마음을 되찾아 보았습니다.



11월 2일-3일 메주운력

사부대중이 먹고 살 중요한 먹거리인 메주운력을 강원스님들께서 신심을 내어 해주셔서 올 겨울에도 맛있는 된장국을 먹게 될 것 같습니다.

11월 11일-13일 동안거 무장무애기도
 동안거동안 아무런 장애없이 열심히 수
 행을 잘 할수 있기를 바라는 기도를 3
 일동안 조석예불후에 드렸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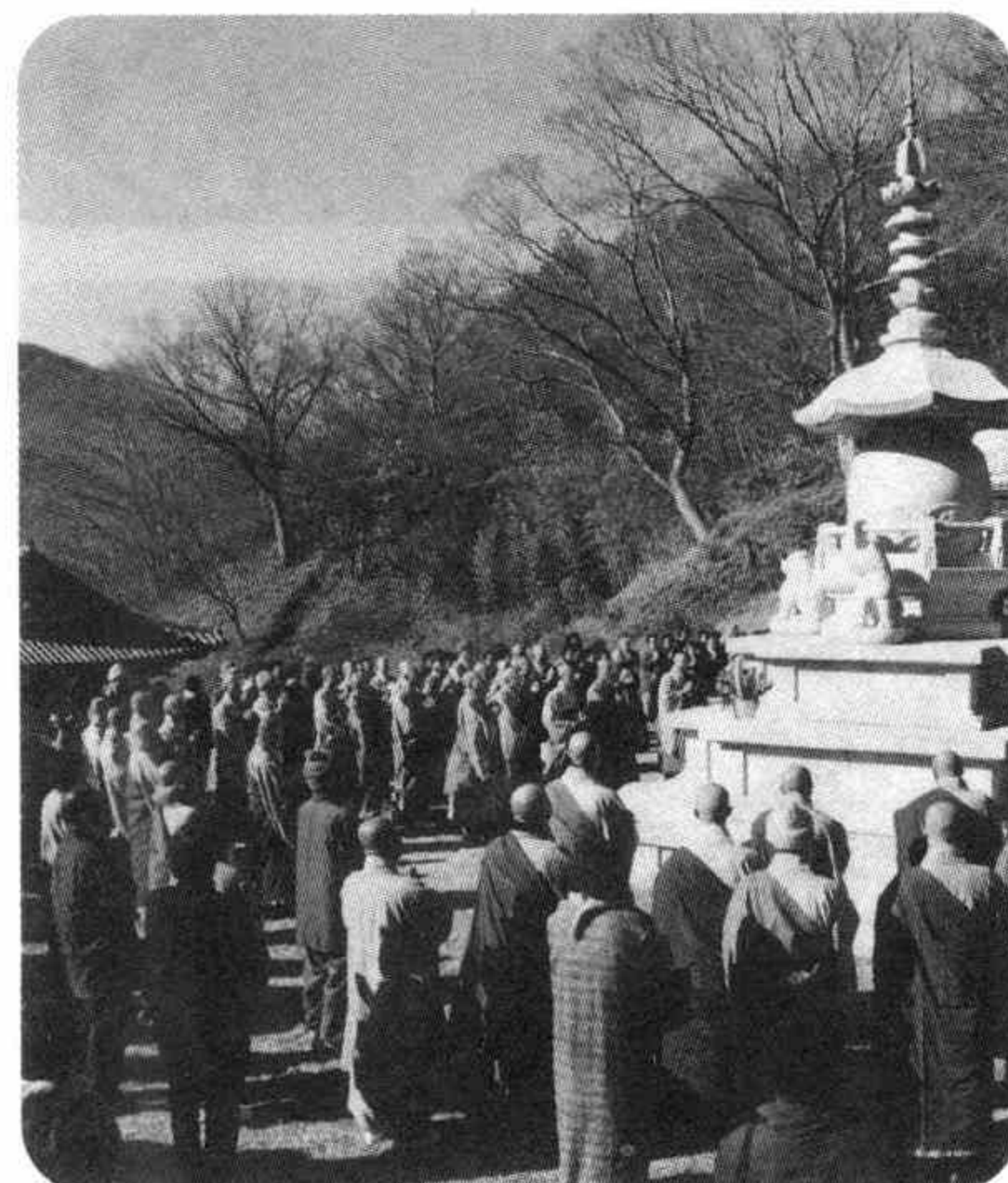
11월 17일 김장 무 뽑기 운력
 김장에 사용할 무를 얻기전에 뽑아 저장
 해 두어야 한다는 방장스님의 지시아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스님들이 모두
 참석하여 운력을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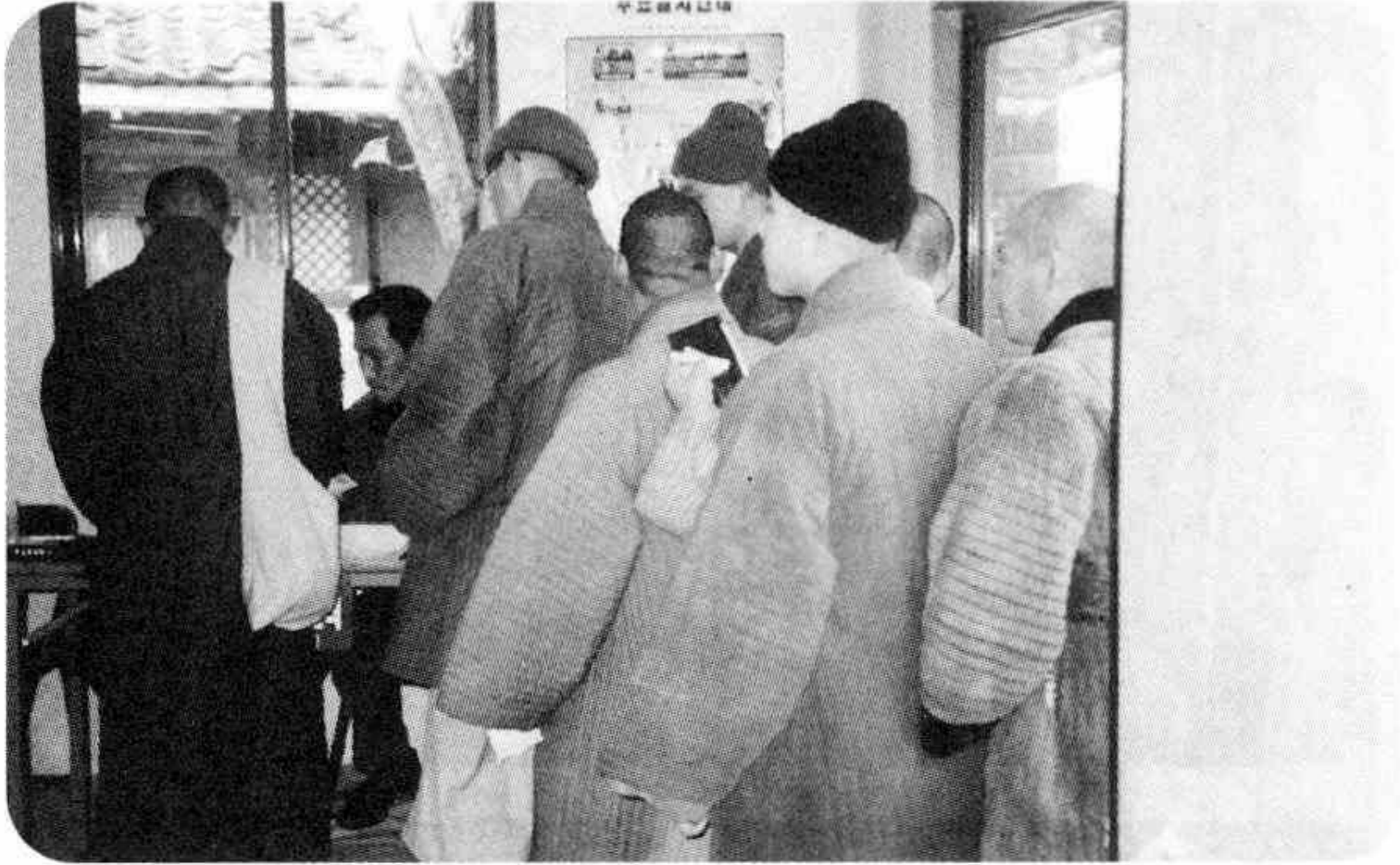


11월 26일-27일 김장운력
 전 대중이 참여하여 배추를 뽑고, 다듬
 고, 절이고, 씻고하는 과정등을 아주 순
 조롭게 하여 겨우내 먹을 김장운력을 무
 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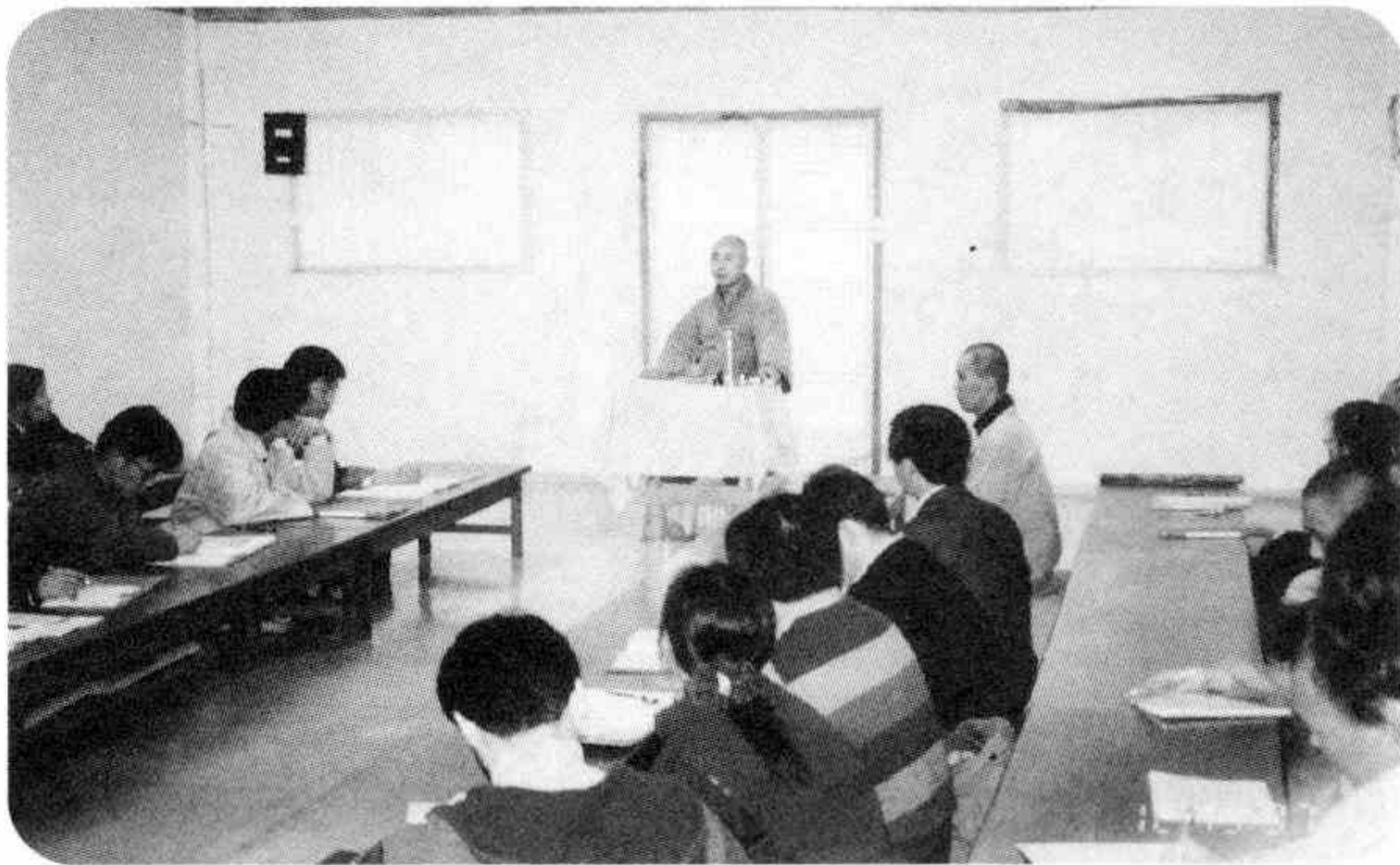
12월 12일 구산대종사 추모법회(제14주기)
 대웅전에서 거행된 추모법회에 사부대중
 이 참석하였고, 의식후에는 탕전에서 탕
 독이도 하였습니다. 스님들 모두가 소인
 을 맡아 수고해 주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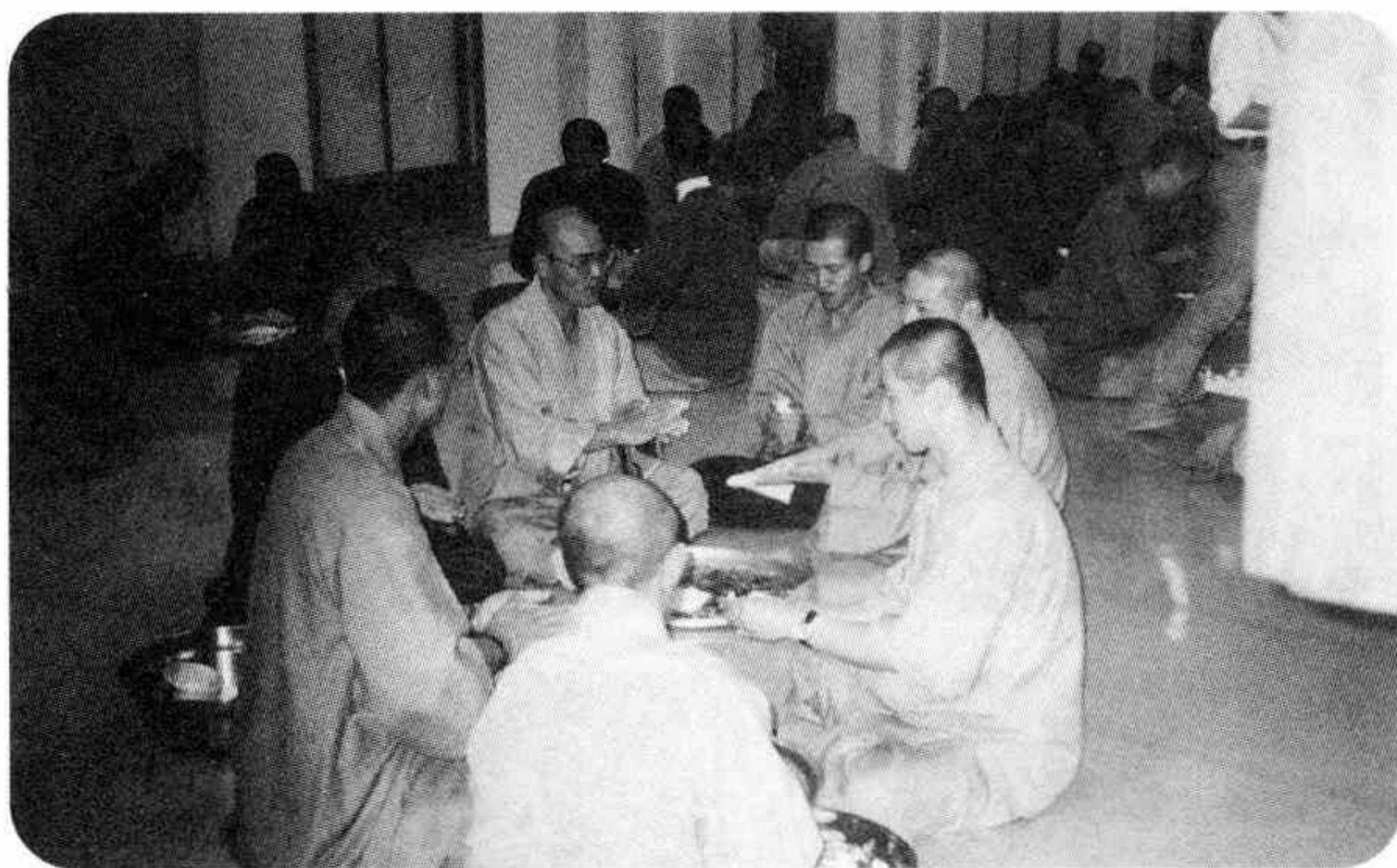


12월 18일 주권행사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대통령선거에 스
님들도 모두 참가하여 한 표를 행사함으
로써 주권자임을 확인하였습니다.



12월 19일 불교, 원불교, 천주교, 기독교, 천도교간 토론
다종교 사회에서 반목과 갈등을 극복하
고 서로의 이해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할 존재라는 사실을, 토론을 통
해서 마음의 장벽을 허무는 계기가 되
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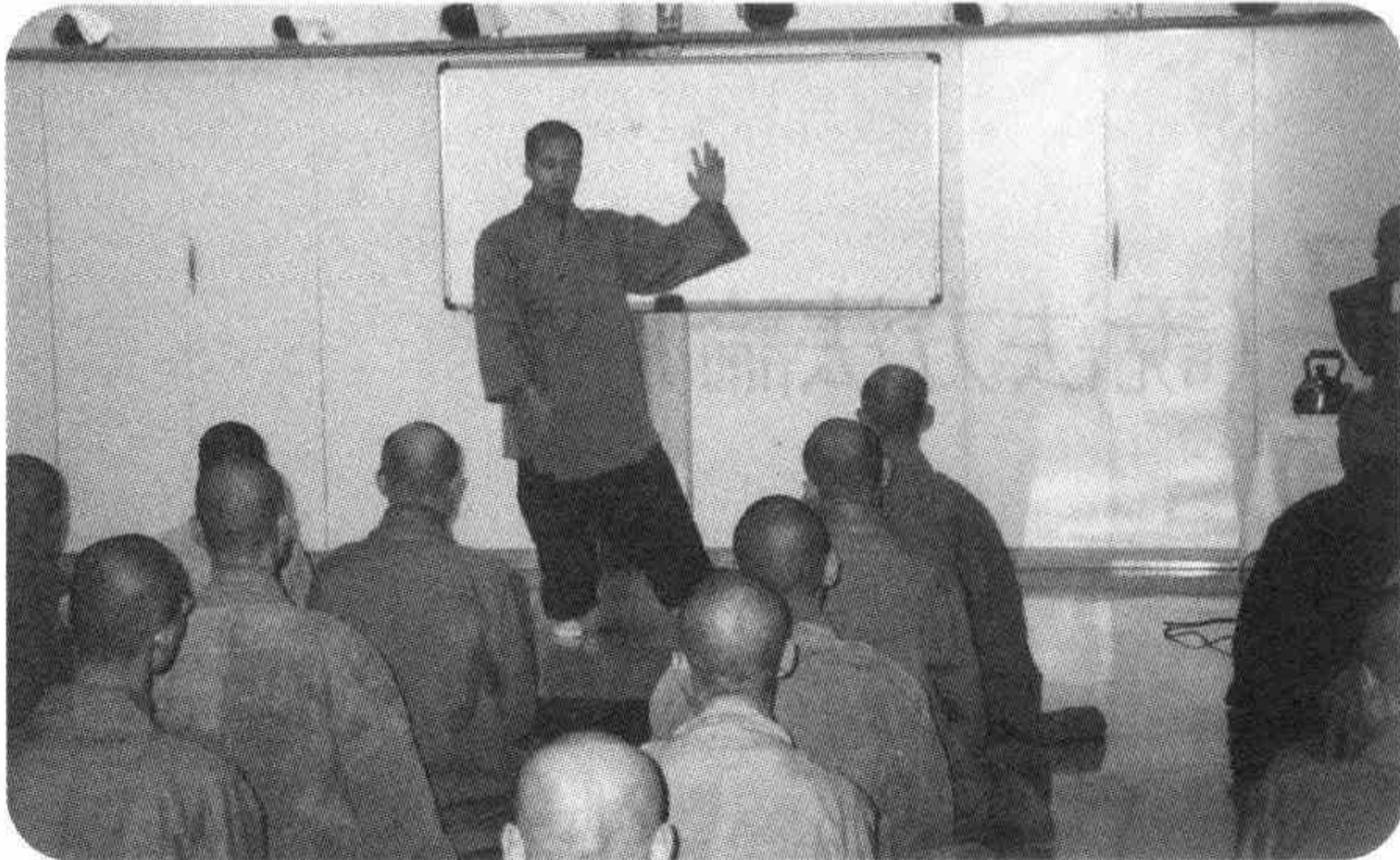


12월 21일 팔죽 새알운력

동지를 맞아 사부대중이 참여하여 새알
을 빚는 운력을 실시하였습니다.



12월 31일-1월 3일 법문, 상담방법 특강
진옥스님께서 바쁘신 가운데 법문하는
방법, 자세 등 체험담을 생생하게 들려
주셨고 실습도 해보았습니다.



1월 1일 기공, 태극권 특강

중국어 강사스님이신 중지스님께서 기공 및 태극권에 대해 이론을 설명해 주셨고, 태극권의 기본자세와 연속동작을 보여 주셨습니다.



1월 7일 반결재 산행

반결재를 맞아 조계산으로 산행을 다녀왔습니다. 선암사에서 전심공양을 하고, 낙안읍성의 민속마을을 거쳐, 돌아오는 길에 고인돌공원을 둘러 보았습니다.



청규습의(11월 17일, 12월 1일, 1월 5일)

청규습의를 통하여 강원생활에서 지켜야 할 예의와 규율을 배우고 익히며, 이것을 바탕으로 앞으로 승려로서 생활하는데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됩니다.



포살

매반월(半月)과 말일에 대중스님들이 모두 참여하여 계(戒)를 설하고 잘못을 참회하는 의식을 갖는다. 이는 승가의 위계질서를 유지시키고 화합을 위한 장이 됩니다.

설법방법론(說法方法論)

진옥(眞玉)/석천사 주지

1. 준비의 말

사람이 다른 중생과 구분되어 질 수 있음은 생각하는 것과, 말할 수 있음에 있을 것이다. 물론 번뇌를 다하여 반야(般若)가 생기는 것도 인간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

사람이 자기표현을 하는데 있어서 그 어떤 행동보다 말이 정확하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세상에는 그 말이 의사소통에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되고있음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부처님께서도 당신의 오도(悟道)의 내용을 말이라는 수단을 통하여 가장 많이 표현하셨고, 그 기록들이 대장경인 것이다. 물론, 말이 가장 중요한 수단임에는 틀림없으나, 그 병폐 또한 많아서 부처님께서 경계의 말씀을 아끼지 않으셨다. 세계의 종교가

운데 아마도 불교만큼 많은 부수의 전적(典籍)을 보유하고 있는 종교도 없을 것이다. 그만큼 많은 말씀을 하셨음을 증명하는 것일 것이다. 물론 오랜 역사도 그 말씀의 양을 많게 하는 요인은 되었겠지만, 불교는 그 시대와 상황에 따라 깨어 있는 말씀들을 응병여약(應病與藥)의 방편으로 말하였기 때문에 그 시대적 언어들로 표현되어 있음도 또한 불교다운 모습들이다. 깨우침의 실상(實相)을 그대로 드러내거나 또는 깨우침에 드는 길(道)과 반야에 들게하는 방편들로 가득하다. 과거의 선현들이 치열한 구도를 통한 오도(悟道)의 정신세계를 법열(法悅)로 가득찬 벽찬 가슴으로 사자후를 토해내던 때와는 달리 근래에 와서는 설법의 법석들이 너무 많지 않고, 설법이 있어도 너무

어려워서 듣지 못하겠다는 신도들의 불만과 아울러 교설의 방법들이 매끄럽지 못하여 전달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 안타까울 때가 많다. 또한, 설법을 한다고 해도 중생고(衆生苦)에 깊숙히 파고들어 그들의 행로를 찾아 주는 말씀보다는 지극히 형식적이고 정치적, 또는 시비심(是非心)을 일으킬 수 있는 설법들이 많아 듣는 청중들이 민망할 때가 많다.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여 어떤 방법으로 설법을 하는 것이 타당하겠는지를 간략히 살펴보면 면하고 필을 들었다. 물론 가장 훌륭한 설법은 무설설(無說說)이요, 불문문(不問問)이지만 중생인지라, 듣는 청중도 상법(相法)에 의존함이 많은 때이라 전달의 수단과 시설을 잘 이용하는 것도 갖추어 법을 설하는 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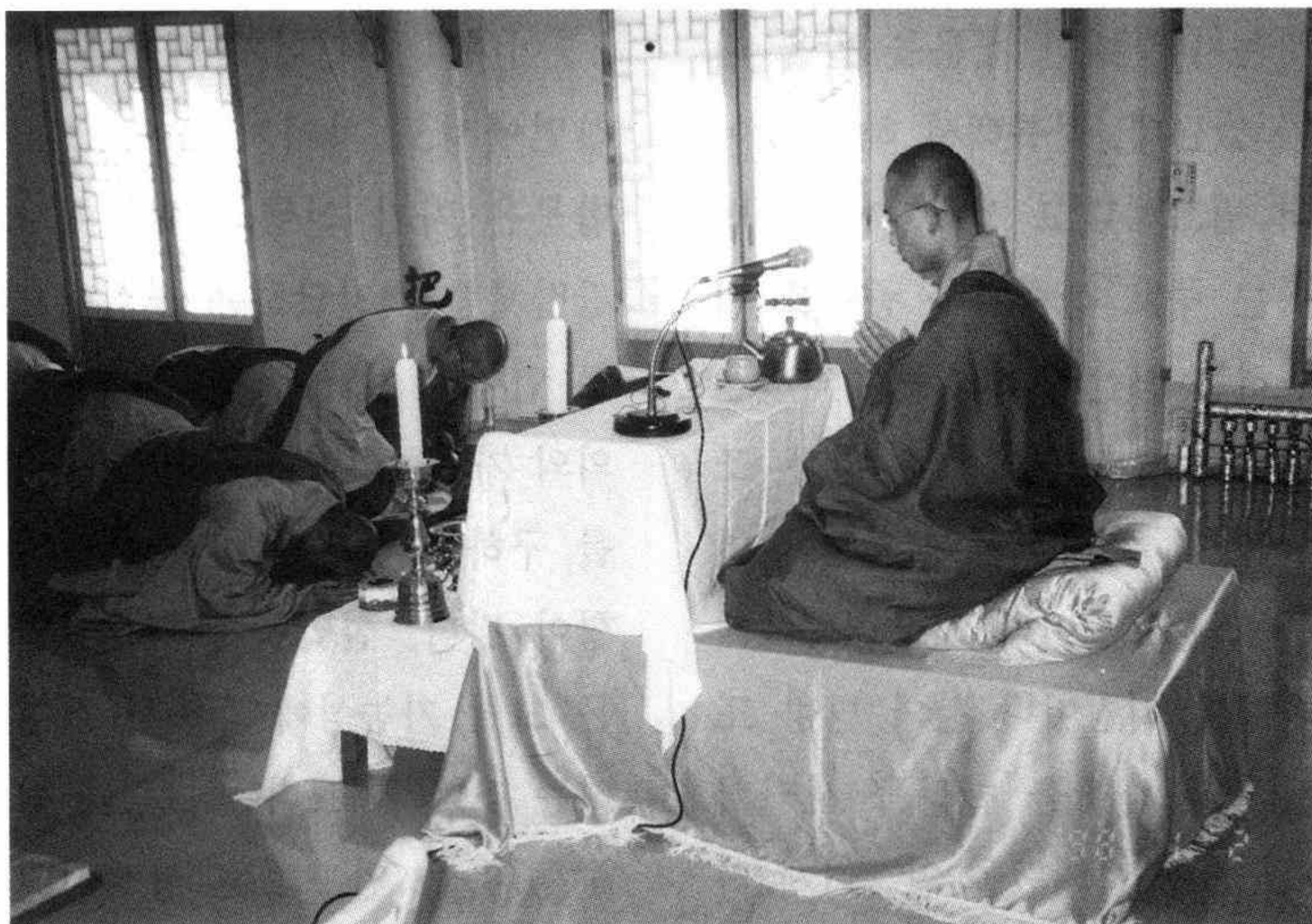
엄(華嚴)이 아니겠는가? 혹여 위의를 잘 갖추어지지 못하여서 그 범마저 낮게 취급당한다면 부처님법을 손상하는 우(愚)를 범하지 않을까하여 몇가지 경험을 중심으로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고, 혹 오히려 누(累)가 되었다면 대중께서는 용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 설법의 종류

1) 불문문(不問問)과

무설설(無說說)

최상승의 설법 형태이다. 언자부지(言者不知)요 지자무언(知者無言)이라고 했듯이 진실상 그 자체는 언어나 행동으로 표현했을 때는 벌써 그 실제의 모습이 아니고 개념화된 하나의 관념일 뿐이다. 따라서, 실상은 바로 말하지 않아도 그대로 시간상으로나 공간상으로 우리 앞에, 아니 나를 포함한 모든 부분이 그대로이며, 그래서 말을 하건 말하지 않건 변화된 것이 하나도 없다. 변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부처님께서 법상에 오르시고자 할 때 문수법왕자가 “오늘 설법은 이와 같습니다”라고 말하고 이에 부처님께서 “이와 같고 이와 같다”라고



“

달마스님의 9년 면벽(面壁)은 그 어느 웅변보다도 웅변이었고, 부처님의 6년 설산수행은 어떤 말씀보다 감동적임...

”

하셨던 것입니다. 선사들의 방과 할은 너무도 잘 알려진 사실들이다. 말하지 않고 이미 말하고 있으며, 말로서 듣지 않고 이미 듣고 있는 설법의 경지는 언어와 생각의 자리가 끊어진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설법의 형태는 형식,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매순간마다 설법하고, 듣고, 묻고하는 것입니다. 달마스님의 9년 면벽(面壁)은 그 어느 웅변보다도 웅변이었고, 부처님의 6년 설산수행은 어떤 말씀보다 감동적임을 이 설법의 형태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활로(活路)로 접어들게 했는지 모릅니다.

2) 법어(法語)

법어나 법문을 크게 분류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을 때가 있는데, 분류해서 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어는 주로 산중이나 종단을 대표하는 정신적인 지주의 역할을 하시는 어르신들(종정, 방장, 조실)께서 결제나 해제 또는 신년 등 전종도들이나 사부대중에게 수행의 지침이나 삶의 방향 또는 공부하게끔 발심을 시키거나, 화두의 의단을 일으키게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극히 간결하면서도 법(法)·아집(我執)이 다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근래의 고승이신 성철큰스님께서 종정으로 계실 때, 여러 시기에 법어를 내어주셔서 많은 이들의 수행의 지침이 되었습니다. 그 이외에도 장례나 큰 특별 법회 등에서 최고의 지도자께서 최상의 법문형태를 법어라고 분류할 수 있겠다.

3) 법문(法問)

대개 법어와 병행하는 경우가 많으나 법어와는 달리 그 형태를 구분했으면 한다. 설법은 법을 설명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법어와 구분되는데, 길이와 시간면에서도 길다. 대개 1시간을 전후해서 설법을 하지만 법어는

5분이내의 시간이기 때문에 시간면에서도 차이가 많이난다. 법문은 자기 신행의 체험이나 간접체험을 전달하는 형식이므로 언어의 사용에 있어서도 강의의 가정형이거나 강연의 동의를 구하는 형태가 아니라 단정형이 많다. 설법단에서의 설법은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렇게 될 수 있음을 인도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청법자들이 따라해야 하는 성격을 띄므로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법상에 법주로 모실 때는 신중을 기하게 되는 것이다. 이를테면 법어나 법문은 교단의 계단법상으로 볼 때 재가자(在家者)는 할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출가의 법은 재가의 형식을 따를 수 없는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육조(六祖)는 깨달은 후에 수계하여 형식을 갖추므로써 법을 높이고 위의를 갖추었던 것이다. 요즈음 일반에서 대승보살 교단을 주장하면서 재가자의 법문이 행하여지고 있으나 출가자와의 역할분담의 측면에서도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재가자는 강의나 강연이 돼야하지 않나 생각한다.

4) 강의

경(經), 율(律), 론(論) 삼장의 그 뜻의 옳고 그름을 분별하여 설명해주는 형식이다. 이는 현재 강원에 그 형식이 잘 보전되어 있다. 강원의 강주를 중심으로 중강들이 삼장의 교재를 갖고 그 내용을 설명하거나 기타 외전을 다른 강사들로부터 설명듣는 것을 말한다. 물론 그 강의의 형식과는 별개로 논강이라는 형식도 결국 강의 형태에 넓게 해석하면 포함된다고 해야겠다.

5) 강연

현재는 주로 일반 재가자에게나 스님네들 경우, 일반 비신도들의 모임에 나가 불법을 설명하거나, 재가 법사들이 불법을 알리는 일을 말한다.

6) 기타

그 외에도 좌담등을 통하여 법담을 하거나, 대중처소에서는 소참(小參)법문등이 있으며, 법의 경지를 알아보기 위한 거량도 있고, 서로 묻고 대답하는 문답형식의 법문도 있다.

축구운력

혜전(慧田)/치문

지난 토요일 백일장을 열어 정혜사 겨울 원고를 모집했다. 워낙 문장이 천박(淺薄)하여 글을 짓지 못하다가 마감 시간이 다 되어서 사친서(辭親書)라는 주제로 횡설수설 몇자 적었더니 아니나 다를까 편집장 스님으로부터 다시 써 오라고 퇴자(退字)를 맞았다.

지난 여름호와 가을호에 두 번 씩이나 실렸으니 이젠 그만썬도 되지 않나 싶는데 편집장 스님은 나로 하여금 3회 연속 당선을 강요(?)하시는 것 같다.

그래! 명색이 정혜사 편집 위원이고, 월드컵 축구도 4회 연속 진출 했는데 -2002년 까지 하면 5회 연속 진출 예정- 이번 한번만 더 노력해서 3회 연속 당선의 위업을 달성해 보자.

축구 이야기가 나왔으니, 주제가 딱딱하고 무거운 사친서(辭親書) 같은 것보다는 가벼운 송광사의 축구 운력을 쓰고자 한다.

일요일 12시.

하루 하루 緇門 難字와 시도 때도 없는 운력에 치여, 자유看經하는 하루쯤은 조용히 쉬면서 한주동안 못다한 일들을 하면서 보내고 싶은데 同業衆生(?)인 찰중 스님은 축구 운력이란다.

이 운력 저 운력에 이제는 축구도 운력!

사시공양을 마치고 한숨 돌리려는데, 가자네! 축구하러!

나~~~참!

사실 우리네 생활이 몸을 많이 움직이는 일이 아닌지라, 한주에 한번 정도는 운동을 하여 몸을 풀어 주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나 워낙 天性이 게으르고 운동 신경이 둔하여 운동이라는 것을 아예 포기하고 사는지라 축구와 같이 격렬한 운동은 부담이 된다.

12시 10분.

일주문 앞에 모여 폐차비까지 없어줘도 안가져갈 寺中の 승합차를 타고 吾道庵으로 갔다.

주암호를 끼고 조계산 뒷자락

에 위치한 吾道庵. 근래(1984)에 지어진 庵子인데 특별한 자료가 없다. 오도암에는 이쪽 골키퍼가 공을 차면 저쪽 골키퍼가 받을 수 있는 아주 아담한(!) 축구장이 있다.

잠간의 불편함을 겪고 -차가 워낙...- 吾道庵에 도착하니, 먼저 오신 스님들이 주변 정리를 해 놓고 기다린다.

다른 분들은 오자마자 축구할 준비를 하지만 나는 워낙 발재간이 없어 뒤로 빠져 보지만 사람이 부족하다보니 머리 숫자 채울려고 축구화를 신었다.

지금까지는 사집반과 치문반을 구별하지 않고 훌쩍으로 나누어서 축구 시합을 했으나, 저번주 경기때 누군가의 제안으로 사집반 대 치문반의 경기를 하게 되었다.

양팀에서 부족한 인원은 사미반 스님들을 양쪽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이런 경기에는 의례히 타이틀(!)이 있기 마련. 진 쪽에서 대중공양을 내기로 하

였다.

윗반 스님들과의 경기이고, 또 지면 대중공양을 내야하기 때문에 단결력과 집중력 그리고 투지는 대단했다. 그러나 결과는 9대5. 대참패였다. 승부는 전반전에 벌써 결정이 나서 사집반 스님들의 넓은 아량(!)으로 그나마도 5골을 넣을 수 있었다.

당연히 지난번 대중 공양은 우리반에서 부담했다.

오늘은 우리에게서 복수혈전(?.....!)의 날이었다. 지금까지와는 작전도 바꾸고, 특히 실력이 출중하나 몸이 불편하던 도반들도 참가하여 열심히 뛰었다.

선취골의 중요성을 실감할 수 있는 날이었다. 범일 스님의 중거리 슈트로 선취골을 넣은 우리반은 사기가 올랐으며, 바로

뒤이어 다시 한 골 추가. 2대0.

그리고 둘째골에는 나의 결정적인 공헌이 있었다는 말을 쓰지 않는다. 이 글을 쓰는 의미가 없으리라. 강원에 들어온 이후 축구 운력에서 처음으로 결정적인 어시스트를 했으니까.

기쁨도 잠시, 사집반 스님들의 반격에 점수는 순식간에 2대2. 밀고 밀리는 공방 속에 어느덧 역전. 아! 우리는 안되는가.

후반전에는 전반에 심판을 보던 普覺 스님과 교대하여 심판을 보았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한말씀 덧붙인다면, 거의 국제심판 수준의 공정성을 기했다는 것을 밝혀 둔다. 안그랬으면 윗반 스님들이 그냥 있지 않았을 테니까.

후반 시작과 동시에 다시 한 골 4대2.

그러나 우리 치문반은 저번

경기처럼 그냥 주저 앉지는 않았다. 특히 반장 소임을 맡고 있는 화진 스님의 목이 터져라 외치는 독려는 국가 대표팀의 차범근 감독을 능가하였다.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 점수차는 4대3, 4대4, 5대4, 그리고 5대5.

쫓고 쫓기는 스코어. 후반 종료 시간에 맞추어 도착하게 되어 있는 茶啖.

멀리서 차담을 실은 차소리가 들려오고, 양팀 모두 지쳐 그냥 무승부로 끝냈으면 할 때, 우리반의 정진제일 정진 스님의 황금 같은 역전골로 6대5. 재역전에 성공!

이때 써먹으라고 옛날 로마의 시이저는 이런 말을 남겼던가.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출가하기 전에는 스님들이 축구를 한다는 것은 상상도 해 본 적이 없다. 그러나 대중이 6-70여명이 모여 살다보니 쌓인 스트레스도 풀어야 하고, 대중의 화합도 도모해야 하는데, 이런 것에는 단체 경기만한 것이 없다고 생각 된다. 축구가 비록 격렬한 운동이나 공을 차는 사람이 스님이고 보면, 너무 승부에 집착하거나 정도 이상으로 격렬해 지기보다는 서로가 상대를 배려해 주면서 경기를 하게 되니 이 또한 마음 공부 아닌가 생각해 본다.



김 장 운 력

화진(華眞)/치문

극심한 가을가뭄으로 인해 제 빗갈을 제대로 내지 못한 조계산의 단풍잎도 거의 떨어져 가고 계절은 하루가 다르게 겨울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동안거 결제한지도 벌써 반살림이 지났다.

절집에서 일년중 가장 충실하게 공부할 수 있다는 동안거 결제중이지만 빠뜨릴 수 없는 윤력이 기다리고 있었다. “김장윤력” 절집의 겨울나기 준비중 가장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는 김장 윤력을 앞두고 내심 모두 다 걱정이 컸었다. 계속되는 가뭄으로 조계산의 계곡물이 거의 말라버려 배추를 씻을 물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방장스님의 말씀으로는 “송광사에 와서 이렇게 계곡물이 마르는 처음 본다”고 하실 정도였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

피력인지 근 3개월만에 때맞춰 비가 내리기 시작하였다. 초겨울비 치고는 양도 상당히 많았다. 금새 송광사를 끼고 흐르는 계곡에는 힘찬 물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하였다.

윤력 첫날, 아침 공양시간에 유나스님의 “사시공양후부터 이틀간에 걸쳐 김장 대중윤력을 한다”는 말씀을 시작으로 김장윤력이 시작되었다. 사실 송광사에서 첫 동안거를 보내는 나로서는 이렇게 많은 대중이 먹는 김장을 어떻게 하는지, 호기심반 걱정반이었다.

사시 공양후 선원, 강원스님들을 주축으로 100여명의 스님들이 화엄전 뒤편에 있는 배추밭으로 모였다. 배추밭에는 극심한 가뭄에도 불구하고 가을 내내 양수기로 물을 뿌려준 덕택으로 배추가 알차게 자라

우리들의 손을 기다리고 있었다. 첫날의 윤력은 배추밭에서 배추를 뽑아내고 그것을 소금에 절이는 것이었다. 먼저 밭에서 배추를 뽑는 스님들에 이어 칼을 잡은 스님들의 배추 뿌리자르기, 뒤이어 경운기 및 트럭에 배추를 실어 나르는 작업이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선원스님들의 노련한 손놀림과 강원스님들의 힘찬 손놀림이 어우러져 그 많던 배추밭의 배추가 속속 정리가 되어져가고 있었다. 모처럼 선원스님들과 같이 윤력을 하니 한층 활기가 넘치는 분위기였다. 이런 연유로 예부터 대중윤력은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참석하라고 하지 않았나 잠시 생각해 본다. 예상보다 빨리 배추가 다 뽑히고 선원스님들이 차에 배추를 실어 주고 강원스님들은 공양



간 앞에서 배추를 절이는 작업에 바로 들어 갔다. 배추를 칼로 쪼개어 소금에 절이는 작업인데, 워낙 배추가 많다보니 소금물에 배추를 분고, 건지는 작업이 기계가 돌아 가는 것처럼 계속 반복된다. 그 중 제일 힘든 일은 제일 아랫반인 사미반 스님들의 몫인지라, 계속 소금물에서 건지는 배추를 차곡 차곡 쌓느라 잠시 쉬지도 못하지만 그래도 힘들다는 기색없이 웃으면서 잘 들 해주고 있다. 모든 스님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첫날에 해야 할 배추 뽑기와 절이기를 다 마칠 수 있었다.

운력 둘째 날, 첫 날과 같이 사시 공양후 모든 대중 스님들이 공양간 앞으로 모였다. 오늘의 작업은 어제 소금에 저린 배추를 씻는 것이었다. 며칠전의 비로 개울에는 배추 씻기에 적당한 물이 흐르고 있었고 오

전에 사중 처사님의 솜씨로 개울가에 배추를 씻을 수 있도록 임시 나무 다리과 개울밑에 비닐 설치작업 등이 적절하게 준비되어 있었다. 배추절임 통에서 배추를 꺼내 개울로 옮기고, 개울에서 배추를 씻고, 씻은 배추를 공양간 앞 평상에 차곡 차곡 쌓는 작업이 실시되었다. 스님들이 각자 맡은 위치에서 열심히 하고 있었으나 배추의 양이 쉽게 줄어들지 않는다.

나의 마음이 조금함 때문일까? 건져도 건져도 어제 절인 배추는 그대로 있는 듯하다. 이때 다각 소임을 맡은 스님께서 따뜻하게 끓인 대추차를 내어온다. 잠시 바쁜 손길을 접어두고 선채로 차담시간을 갖는다. 잠시 주위를 둘러보니 개울주위는 온통 배추가 지천이다. 스님들과 배추가 하나로 어우러져 절집에서만 볼 수 있

는 색다른 모습을 연출해 내고 있다. 잠시 동안의 차담 휴식 후 계속된 작업으로 절인 배추가 끝이 보이기 시작한다. 또 한번의 다각 스님의 차담 제공이 있었다.

이번에는 수제비, 감자, 과일등 내용이 풍성하다. 다들 시장하던 차에 맛있게 차담시간을 갖고 바로 작업시작, 배추를 다 씻고 배추 한 잎도 소홀히하지 않았다던 옛 스님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개울가의 청소를 마치니 벌써 저녁공양 시간이다. 둘째날도 대중 스님들의 노력으로 무사히 모든 작업을 마칠 수 있었다. 여기까지가 우리 스님들의 작업이고, 이후의 작업은 아무래도 보살님들의 손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다. 다음날 마을 보살님과 신도보살님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동안거 김장운력을 마칠 수 있었다. 요즈음 점점 우리의 생활 양식이 서구화로 바뀌면서 김장 또한 점점 사라져 가는 경향이라고 한다. 그러나 우리 절집에서 만큼은 공동체의 아름다운 생활모습이 아직까지 남아있다. 절집의 공동체의 생활모습이 면면히 이어지고 다시 우리의 사회로 확산되어 함께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이번 김장 운력을 통하여 가져본다.

강원의 수행과 지식을 지혜로의 전환

I 주제발표 - 송광사 강주스님

○ 강원의 수행

몇 년 전에 광주 종교인 평화 회의에 참여하여 당시 저는 '불교의 지혜와 평화운동'이라는 주제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강원의 수행과 지식을 지혜로의 전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을 승가대학이라 부르기 좋아하는 분들이 종단내에 있지만 저는 그것을 부정합니다. 불교적 성향이나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볼 때 강원은 대학 체제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강원애 애정을 갖고 우리의 승가 전통 그대로 다시 살려 내려고 노력 중입니다. 강원체제는 승가체제와는 틀리지 않지만, 대학과는 다릅니다. 지식을 지혜로 전달하는 장(場)으로서 대학체제보다는 강원체제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강원은 학문하는 곳이 아닙니다. 불교는 이론적으로 학습하는 체제가 아닙니다. 실천의 종교입니다. 교법은 뗏목에 비유할수 있는데, 강을 건너는데 -고통의 바다를 건너는데 - 뗏목정도의 역할입니다. 달을 가르키는 손가락이지 달은 아닙니다.

그런데 달을 보기 보다는 손가락을 보고, 뗏목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고통의 언덕에서 고통이 없는 저쪽 언덕으로 건너가기 보다는 뗏목과 배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이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전통적인 것은 다 낡은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현대 문명의 조류가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실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옛날 것으로는 안된다고 하지만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한국 불교가 조선조 500년과 일제 식민지, 6.25전쟁, 정부의 간섭, 대처승에 대한 정화운동 등을 통하여 내려온 고난의 역사를 생각한다면, 서양식의 현대교육을 도입하는 것이 어느 정도 수궁이 되지만, 그때는 불교가 정화운동 등의 내부 문제때문에 사회에 관심을 갖지 못하고, 자체 정화를 위해 힘을 많이 소비하였습니다. 정부에서는 자기 정권 유지를 위해 불교를 이용했던 것도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에는 조선 침략을 위해 불교를 달랜 후에, 조선을 침략한 후에 사찰령을 만들어 불교를 망쳐 놓았습니다. 승려의 질이 떨어지고 불교에 대한 깊은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강

원이라는 체제에 관심이 없었고 발전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현대학문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에 생각이 집중되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아닙니다. 불교는 上求菩提 下化衆生이 목적인데 불교를 사상이나 철학으로 보고 그것을 배우는 데에 목적을 두는 것은 학문체제로서 상구보리도 아니고 하화중생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교는 근본적으로 지식을 지혜로 전환하여 깨닫게 하는데 있습니다. 즉 교법을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저쪽 언덕으로 건너기 위한 뗏목으로 달을 보거나 뗏목으로 저쪽언덕으로 건너는 실천수행이 戒·定·慧 三學입니다. 戒·定·慧 三學은 인체의 맥박과 같습니다. 脈이 약하면 겉으로 보기에 건강할것 같아도 생명이 위태롭습니다. 지금은 계정혜 삼학의 실천이 아닌 불교 이론에 묻혀 있습니다. 바로 대학체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강원은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가르쳐서 생활에 그대로 응용하는데 있습니다. 그 응용은 계정혜 삼학을 통해서 합니다. 생활속에 구현시켜 내는 것이 강원의 체제입니다. 그래서 강의방식도 주입식이 아닌 문답식입니다. 경전의 내용과 조사 스님들의 가르침과 보살의 논서가 다 문답식입니다. 문답을 통해 바로 깨달음으로 들어 가게 되는데, 그 전 초전이 바로 논강입니다.

조계종단의 지금 상황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출가한 스님들의 생각이 많이 깨어 있고, 주변 여건도 변화되어 승가 교육이 바뀌어오는 과정에 놓여 있습니다. 전통적인 것이 각 강원에서 행해지고는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타성에 젖어 있거나 잊어버리고 있는 실정이며 실행 의욕은 있으나 방법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경하는 것 자체가 수행이며, 예불, 안행식(걸음), 포행(개인산책), 참회, 공양등 이런 것들 모두가 수행입니다. 그냥 이름을 부친 것이 아니라 그런 근거가 있습니다. 송광사 강원에서는 그것을 복원하고 있습니다. 이름만 남은 간경을 다시 찾아 시행하고 있고, 예불드리는 하나하나가 수행방법입니다.

하루에 소를 세 번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하루 세 번 예불드릴 때, 자기의 본래면목인 소를 찾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

이 부처임을 알고 예불할 때 부처님을 공경하고 받들지만, 그것을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 지식을 지혜로의 전환

강원은 교육하는 곳이 아니라 지식을 지혜로 전환하는 수행처입니다. 만일 교학이 목적이면 그것은 교육이고 지식 전달이 될 뿐입니다. 지혜를 체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한계가 있습니다. 지식은 자기 체득이 없어도 얼마든지 전달이 가능합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거나 생각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한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혜는 전달이 불가능합니다. 모양이 없는 것(無相)을 아는 지혜이기 때문에 스스로 체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에게 이미 갖추어져 있는 것을 개발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부처님의 말씀을 배우는 즉시 자기 생활에 응용합니다. 부처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자기 자신의 이야기이며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의 관계입니다.

知識과 般若智慧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지식은 보이는 사물과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것 등을 아는 마음으로 그 앎은 모든 이미지를 고정화 한 것입니다. 하나의 틀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식은 보고 듣는 형상과 소리 등 나타나는 모든 현상만큼 많아지고 현상이 변하는 만큼 지식은 바뀝니다. 그러나 지혜는 갖가지 형상이나 그것을 이미지화 하는 생각의 본질이 끊임없이 변하는 無常이며 無相한 모양이 없는 것을 아는 앎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無分別智라고도 합니다. 또 모양 없다는 이 하나의 모습을 아는 앎이라고도 합니다. 따라서 형상이 변하므로 그것을 인식하여 안 지식은 변하지만 존재의 본질이 본래 없으므로 이 없음은 마치 허공과 같아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을 아는 지혜도 변하지 않는 것이 지식과 다른 특징입니다.

또 응용면에서도 다릅니다. 지식은 사물을 분해하여 단순 하시키고 종합하여 판단하는데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의 분해시키고 단순화하는 힘은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서는 자연을 파괴시키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는 비교하여 우월의식과 열등의식을 일으키는 我執으로 나타납니다.

반야는 곧 지혜입니다. 지혜가 돈발되기 위해서는 아집이 꺾여야 합니다. 나를 내세우면 너와 나가 분리되고 비교되고 우월 열등 의식이 생깁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我相이라고 합니다. 집단의 힘을 빌려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집단 자아도 있습니다. 그러면 투쟁이 생기고, 인간 관계가 추악해 집니다.

반야는 이러한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緣起의 관계를 드러

냅니다. 하나하나가 그물코와 같이 연결됨을 드러냅니다. 아집과 법집을 드러내는 것이 지식입니다. 문화양태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반야는 함께 어우르고 함께하는 아름다운 삶을 드러냅니다. 인간과 인간의 사이와 자연을 살립니다. 그렇게 함께 사는 아름다움을 실현하는 실행을 불교에서는 慈悲라고 합니다. 관계 개선에 자비만큼 좋은 것은 없습니다. 관계회복의 한 방법으로 금강경에 보시 바라밀이 있습니다. 이것도 반야지혜입니다.

인간과 자연의 관계도 반야 지혜에서 회복됩니다. 지식은 파괴합니다. 반야는 파괴를 복구하고 죽음을 살리는 힘이며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체제가 강원의 체제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몸소 실천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현대의 교육은 머리로만 하려는 것이 단점입니다. 토론하고 가르치지만 몸으로는 안됩니다. 강원은 많은 지식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았지만, 적은 지식이라도 실천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송광사 강원이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강원의 스님들이 입방하고 6개월 정도 지나면 얼굴 빛이 달라집니다. 행동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바뀌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마음의 바뀜은 곧 수행이고 戒·定·慧 三學의 수행적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교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상의 생활이 계율로 나타납니다. 계율의 목적은 관계회복에 있습니다. 살생하지 않으면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다 회복됩니다. 도적질, 음행, 술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율은 지키는 그대로 반야바라밀, 지혜를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지혜가 드러나게 됩니다. 마치 구름이 사라지면 달이 드러 나듯이. 이것이 계정혜 삼학입니다. 선정을 닦는 방법. 계율을 지키면서 선정을 닦는 방법. 혜를 닦는 방법이 다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다 제쳐두고 현대 지식만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戒·定·慧 三學을 구현하는 또 다른 방법은 正念입니다. 팔리어로 '샤띠'라고 하는데 '집중한다', '관찰한다', '자기에 대한 알아차림' 등의 뜻이 있습니다. 三學 중의 慧의 작용이기도 합니다. 남을 통해서 자기를 알아차리는 방법이 大乘의 방법입니다. 남을 해치는 마음을 없애는 방법은 중생을 구제하고자 하는 큰 마음을 가져야 가능합니다.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 것이 너의 마음을 행복받는다 고 하는 金剛經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것이 正念입니다.

부처님 말씀을 몸으로 구현해 내는 것이 지식을 지혜로 전환하는 방법이고, 이것을 행하는 곳이 講院이며, 나쁜 마음을 올바른 마음으로 바꾸는 것이 수행입니다. 그러면 이

것을 현대적으로 어떻게 실천해낼 것인가? 그 일환으로 저희 강원에서는 여러 지역에 지도법사를 파견하여 실제로 구현하기 위한 실천행을 하고 있습니다. 소년소녀 가장 돕기, 북한동포 돕기, 어린이회 결성 등을 통해 반야를 구현해 내고 있습니다.

II. 질의와 응답

덕연 : 講院의 공부년한에 어떤 단계가 있나요?

답 : 옛날에는 10년 내지 11년을 했습니다. 安居를 옛날에는 인정했는데 大學體制가 들어오면서 4년으로 줄어 들었습니다. 沙彌律儀 四集 四教 大教.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경지가 달라지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부하는 스님 각자의 근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식공부라면 초등학교에서부터 시작하여 대학원까지의 일정한 단계가 있으나 깨달음에는 없습니다. 지혜공부에서는 깨닫기 위한 정해진 단계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지 자신의 근기와 노력여하에 따라 단계를 밟아 올라 가는 行布門. 처음부터 바로 건너뛰어 올라가는 圓融門이 있습니다. 頓悟頓修, 頓悟漸修와 같은 것이죠. 4단계로 나뉘지만 공부하는 스님에 따라 달라집니다.

광수 : 방학 같은 특정 기간이 있나요?

답 : 옛날에는 20일 정도, 요즘은 두달 정도 방학을 합니다. 叢林에서는 여름 석달 안거와 겨울석달 안거가 있습니다. 禪院에서는 여름과 겨울 해제후 각 석달이 萬行기간이나, 강원에서는 각 한달이 방학입니다.

광수 : 안거와 강원은 다릅니까?

답 : 禪院에서의 修行만을 안거로 보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 당시부터 雨期때 안거를 하였는데, 그때는 계율도 배우고 법문도 듣고, 들은 법문을 외우고 하였는데 그것이 강원체제의 시작입니다.

덕연 : 불교에서 현대과학을 활용하는 방법은?

답 : 신과학 운동이 있는데, 신과학 운동하는 사람들의 이론적 근거는 대개 동양 사상 - 특히 불교사상 - 을 끌어들이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탁월한 智慧]라는 책에는 제프리 추의 '구두끈' 이론이 나옵니다. 이 구두끈이론은 불교의 중중무진법계연기와 같은 것입니다. 그 책에서는 구두끈이론에 관해 아버지가 아들에게 몇십년 연구한 내용을 이야기 하자 고등학교 3학년 아들이 이미 불교에서 말한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프리 추는 아들의 말을 듣고 '나는 대경 실색했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나비효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과 불교는 서로 갈등하거나 마찰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접목 프로그램은 아직 없습니다.

명원 : 지혜를 통해 고요함을 키우고, 고요함을 통해 지혜를 증진한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지식에서 지혜로 전환하는 부분에서 흔히 先後... 主從관계로 따진다면 어디에 비중이 있나요?

답 :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불교의 보편적인 이야기입니다. 지식을 지혜로 전환함은 唯識의 轉識得識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教宗, 律宗, 禪宗에서의 구별은 불필요한 것입니다. 근본은 戒·定·慧 三學입니다. 계율에 의해 고요함(定)이 생기고 고요함에 의해 혜가 생긴다고 경전에서 설합니다. 六바라밀의 持戒바라밀은 戒에 해당하고 禪定바라밀은 定에 해당합니다만 다같이 반야바라밀이라고 반야경에서는 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후나 주종관계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부처님 당시에는 그런 구분이 없었습니다. 엉뚱한 이야기입니다만 불교의 교리체계는 아주 광범위합니다. 해인사에서 하버마스라는 사람은 "팔만대장경을 한국민들이 명상하고 읽고 쓰고 있느냐? 왜 썩혀두느냐?"고 이야기 합니다. 상상도 못할 정보가 많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지식, 교육, 수체계, 병치료, 정치, 경제문제 등 굉장히 방대한 자료가 있습니다. 인생사에 관한 모든 것을 記述하고 있습니다. 寶庫가 잠자고 있음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명원 : 대응전이 다른 사찰과 다르더군요. 대응전에 모셔진 세분의 부처님과 네분의 보살님의 관계와 불상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죠?

답 : 부처님과 보살의 관계는 보살은 부처를 지향합니다. 인간의 모습이 각기 다르듯이 보살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인간의 모습을 벗어난 것 입니다. 현상으로 극화시킨 것은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쇠로만든 부처는 용광로 위를 지나갈 수 없고, 나무로 만든 부처는 불 위를 지나갈 수 없고, 흙으로 만든 부처는 물위를 지나갈 수 없듯이 진정한 부처는 아닙니다.

불상의 특징은 선정과 지혜의 모습입니다. 얼굴 자체에 흐르는 고요함과 자비로움, 그것은 우리들 자신의 모습입니다. 마음이 곧 부처이므로 마음밭(心田)의 부처를 찾는 것이 수행입니다. 부처를 모습으로 나타낸 것은 중생 구원의 한 방편에 불과합니다.

광수 : 큰 사찰에 가보면 대개 강원이 비구(사미)스님들에게 열려있는데, 비구니(사미니) 스님들은 다른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다른 강원에서 해야되는 것인지?

답 : 옛날에는 가끔 비구니스님들이 와서 청강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비구니 강원도 나름대로 시스템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남궁경 :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답 : 운문선사는 “룸비니 동산에서 신달태자가 태어날 때 내가 그곳에 있었다면 몽둥이로 때려 죽여 개에게 주겠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부처에 대한 최대의 찬사입니다. 부처는 사상이나 철학으로나 형상으로 보서는 부처를 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여라” 라고 한 것은 그러한 생각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생각은 기억이고 영상입니다. 생각이 부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각은 변하는 것입니다. 부처를 지식으로 받아들이면 깨달을 것 같지만 그 생각이 사라지면 같이 없어져 버립니다. 깨달으면 항상 같은 상태인지라, 몸의 노쇠나 세월의 흐름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 반야지혜입니다.

민형기 : 지식이 없이 지혜가 가능합니까?

답 : 지식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지혜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있으면 지식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농부가 농사를 짓는데 도구를 다루는 것과 같습니다. 유익한 지식과 그렇지 않은 지식이 있습니다. 지식을 지혜로 전환 할 때 쓸모없는 지식은 지혜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남궁경 : “개한테도 불성이 있다.” 있다고 하면 어떤 경

우에는 맞고, 어떤 경우에는 맞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답 : 유정무정 개유불성이라. 모든 것은 불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없다는 대답은 불성이 있다는 것에 집착한 사람에게 대답한 것입니다. 있다는 대답은 불성이 없다는 것에 집착한 사람에게 대답한 것입니다. 상대의 근기에 따라 말을 바꾸어서 대답한 것입니다. 무엇을 노리고 그것을 물었느냐가 중요합니다. 스승이 제자를 모르고 그냥 수학 공식처럼 던져주는 대답이 아닙니다. 있다, 없다는 답변은 원칙적으로 해답을 던져주지 않습니다. 질문을 본래 대답의 과녁에 꽂히게 되어 있습니다. 언어로 표현하고, 생각하는 것이 존재할 것이라고 여기는데, 사실 그것은 허구입니다. 찻잔은 던지면 깨지나 찻잔이라는 이미지를 가진 생각의 찻잔은 던져도 깨지지 않습니다. 해답은 말입니다. 또 해답을 주려는 생각도 말과 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깨트려주기 위해서 문제의 본질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 ‘있다’ ‘없다’ 는 대답을 한 것입니다.

도형 : 가르침에 여러 방편이 있다고 하셨는데 사찰이나 스님의 법어도 하나의 방편입니다. 그런 방편 조차도 벗어날 수 있는 것도 수행의 하나의 목적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답 : 방편은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방편은 뗏목입니다. 이 땅에 중생이 없으면 부처가 필요없습니다. 부처는 중생이 제도합니다. 중생이 있기 때문에 중생을 구제할 마음이 있게 되고 그래서 부처가 됩니다. 깨달음은 출가수행을 해야만 깨달아 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효율적으로 그 과정을 하고 오래도록 그런 깨달음 유지해서 중생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승가가 있습니다.

민형기 : 관계 회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스도교 관계회복과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답 : 불교의 관계회복은 평등한 관계입니다. 신과 인간의 관계는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신은 신의 속성을 거부하고, 인간은 인간의 속성을 거부해야지 그 관계가 평등하게 회복됩니다. 이 말은 불교 입장에서 한 말입니다. 모든 것은 평등해서 하나의 성품이고 이 세계는 하나의 모습입니다. 반야에 의해 구현되어 있는 모습을 회복해 내는 것입니다. 수평적 관계 말입니다. 연기법은 누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여래가 이 세상에 출현하기 이전에 또 입멸 한 이후에도 이 연기법은 상주합니다. 원래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안 내 자

부처님께서 사위성 기원정사에 계실 때, 반사라라는 천인이 문안 드리고 계송으로 여쭙었다.

“아름다운 천녀가 좌우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마치 흙혈귀가 앞 다투어 모여들 듯 하며, 어리석음의 수풀이 겹겹이 쌓인 곳을 그대는 어찌 통과하겠는가?”

부처님께서 계송으로 말씀하셨다.

“곧고 바른 것을 길(道)이라하고
두려움 없는 곳을 목적지라 한다.

고요하고 한가한 수레를 타고

진실의 가르침을 덮개로 삼고

부끄러움을 고삐로 삼으며

바른 생각을 자갈로 하여

지혜를 훌륭한 말몰이 삼고

바른 소견을 안내자로 삼는다.

이 세상 어느 사람이라도 이것을 타면

생사의 험한 숲 속을 지나 편안하고 즐거운 열반에 도달하리라.”

잡아함경 제22:587경:〈2-156상〉

권수정혜결사문(3)

대용(大用)/ 사집반

如是追念. 過去久. 遠已來. 虛
 受一切身心大苦. 無有利益. 現
 在即有無量逼迫. 未來所苦. 亦
 無分劑. 難捨難離而不覺知. 況
 此身命. 生滅無常. 剎那難保.
 石火風燈. 逝彼殘照. 不足爲喻.

歲月飄忽. 暗催老相心地未修.
 漸近死門. 念昔同遊. 賢愚雜還.
 今朝屈指. 九死一生. 生者如彼
 次第衰殘. 前去幾何. 尙復恣意.
 貪嗔嫉妬. 我慢放逸. 求名求利.
 虛喪天日. 無趣談話. 論說天下.
 或無戒德. 空納信施. 受人供養.

이와 같이 미루어 생각해 보면 아주 먼 과거로부터 몸과 마음의 모든 고통을 헛되이 받아 이익이 없고 지금도 한량없는 핍박을 당하고 미래에 겪을 고통도 또한 한계가 없어 버리기 어려운데 이러한 사정을 모릅니다. 더구나 이몸의 생멸이 무상하여 잠시도 보존하기 어렵고 바람 앞의 등불, 흘러가는 파도, 쇠잔한 낙조로도 충분히 비유하지 못합니다.

세월이 바람같이 빨라 은근이 늙음을 재촉하고 마음을 닦지않고 점점 죽음의 문에 이르러 옛날 함께 노닐던 친구를 생각해보니 현명한 이도 어리석은 사람도 함께 있는데 오늘 아침에 손가락으로 헤아려보니 열에 아홉은 죽고 한명 정도만 남았습니다.

삶이 이와같이 쇠잔해 가는데 남은날이 그 얼마이기에 오히려 생각을 마음대로 하고, 탐욕 성냄 질투와 교만 게으름으로 이익과 명예를 구하여 헛되이 세월을 보내고 쓸데없는 이야기로 천하를 얘기하며 혹은 지계의 공덕도 없이 공연

無漸無愧. 如是等. 無量無邊.
其可覆藏. 不爲哀痛乎.

如有智者. 當須競慎. 策發身心.
自知已過. 改悔調柔. 晝夜勤修.
速離衆苦. 但依佛祖誠實之言. 爲
明鏡. 照見自心. 從本而來. 靈明
清淨. 煩惱性空. 而復勤加決擇邪
正. 不執己見. 心無亂想. 不有昏
滯. 不生斷見. 不着空有. 覺慧常
明. 精修梵行. 發弘誓願. 廣度群
品. 不爲一身. 獨求解脫.

如或世間事務. 種種牽纏. 或病苦
所惱. 或邪魔惡鬼. 所能恐怖. 如
是等身心不安. 則於十方佛前. 至
心洗懺. 以除重障. 禮念等行. 消
息知時. 動靜施爲. 或語或默. 一

히 시주물과 다른 사람의 공양을 받고도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이와같은 무리들이 한량없이 많으니 가리고 덮어도 애통하지 않겠습니까?

만일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반드시 조심하여 몸과 마음을 채찍질하여 자기의 허물을 스스로 알아 고치고 뉘우치며 고르게하고 부드럽게하여 밤낮으로 열심히 수행하여 온갖 고통을 멀리 벗어나야 합니다.

다만 부처님과 조사의 진실한 말씀을 의지하여 밝은 거울로 삼아 마음이 본래부터 신령스럽게 밝고 깨끗하여 번뇌의 성품이 텅비어 있음을 알아서 더욱더 샷된것과 바른 것을 결택하여 자기의 견해를 고집하지 말고 마음은 어지러운 생각이 없대 어두워 막힘이 없으며 단견을 내지말고 공(空)과 유(有)에도 집착하지 마십시오.

깨달음의 지혜가 항상 밝아 깨달음으로 이르게 하는 수행을 세밀하게 닦으며 큰서원을 내어 모든 중생을 널리 제도할것이니 내 한몸이 홀로 해탈을 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령 세간의 일로 갖가지로 얽메이고 혹은 병고로 괴로움을 당하고 혹은 샷된 마귀, 악한 귀신들에게 공포를 당하는등 일로 몸과 마음이 불안하다면 온세상의 부처님에게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여 무거운 업장을 제거하여 예불과 염불을

切時中. 無不了知. 自他身心.
從緣幻起. 空無體性. 猶如浮
泡. 亦

如雲影. 一切毀譽是非音聲. 喉
中妄出. 如空谷響. 亦如風聲.

如是虛妄自也境界. 察其根由.
不隨傾動. 全身定質. 守護心
城. 增長觀照. 寂爾有歸. 豁然
無間. 當是時也. 愛惡自然淡
薄. 悲智自然增明. 罪業自然斷
除. 功行自然精進. 煩惱盡時.
生死即絕. 生滅滅已. 寂照現
前. 應用無窮. 度有緣衆生. 是
爲了事人分上. 無漸次中漸次.
無功用中功用也.

함께 하십시오.

설때를 알고 어묵동정(語默動靜)의 모든 때에
나와 남, 몸과 마음이 인연을 따라 허깨비같이
나왔으며 텅비어 자체의 성품이 없는 것이 마치
물거품과 같으며 또한 구름의 그림자와 같아 모
든 훼방과 칭찬, 옳다 그르다는 말들이 목구멍
에서 나오는 것이 마치 텅빈 계곡에서 울리는
메아리 같으며 또한 바람소리와 같음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허망한 분별의 세계에서 근본원인
을 관찰하여 경거망동을 하지 않고 온몸은 안정
하되 마음의 성을 지키고 보호하여 더욱 더 관
조하면 고요하여 근본으로 돌아가고 편안하여
잠시라도 끊임이 없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사랑과 미움이 자연히 얽어
지고 자비와 지혜는 자연히 증가하고 밝아지며
죄업은 자연히 끊어 없어지고 공덕과행실은 자
연히 자랄것입니다.

번뇌가 다하는 그대에 생사가 바로 끊어지고
생멸이 사라지면, 고요하나 항상 아는 작용이
눈앞에 드러나니 끊임없이 응용하여 인연있는
중생을 제도하십시오. 이것이 깨달은 사람의
분상에서 차례 없는 차례, 행위없는 행위입니
다.

周¹⁾京師²⁾大中興寺道安³⁾法師遺誠

도담(道潭) / 치문

敬謝諸弟子等，夫出家爲道至重難，不可自輕，不可自易，所謂重者，荷道佩德，仁負義，奉持淨戒，死而有已，所謂難者，絕世離俗，永割親愛，迴情易性，不同於衆，行人所不能行，割人所不能割，忍苦受辱，捐棄軀命，謂之難者，名曰道人，道人者，導人也，行必可履，言必可法，被服出家，動爲法則，不貪不諍，不讒不慝，學問高遠，志在玄默，是爲名稱。

參位三尊，出賢入聖，滌除精魂，故得君主不望其報，父母不望力，普天之人，莫不歸攝，捐妻減養，供奉衣食，屈身俯仰，不辭勞恨者，以其志行清潔，通於神明，淡泊虛白，可奇可貴。

自獲荒流，道法遂替，新學之人，未體法則，著邪棄正，忘其眞實，以小爲智，以小

삼가 여러 제자들에게 말하니, 출가하여 도를 닦는다는 것은, 지극히 막중하고 지극히 어려운 것이니 가히 스스로 가볍고 쉽게 여기지 말라. 이른 바 막중하다는 것은, '도(道)'를 짊어지고 '덕(德)'을 몸에 지니고 '인(仁)'을 두르고 '의(義)'를 짊어지고 청정한 계행을 받들어 지키기를 죽어서야 비로서 마치는 까닭이고, 이른 바 어렵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인연을 끊고 세속을 여의어 영원히 부모의 사랑을 배어버리고 생각을 바꾸고 습성을 돌이켜 세속의 무리들과 함께 하지 아니하며 남이 행하지 못하는 것을 행하고 남이 끊지 못하는 것을 끊으며, 괴로움을 참고 남의 욕됨을 받아 들여 몸과 목숨을 던지고 버리나니 이를 일러 어렵다고 하는 것이다. 이를 일컬어 '도인(道人)'이라고 하는 것이니 도인(道人)은 사람을 인도하는 것이다. 행동은 반드시 모범이 되어야 하고 말은 반드시 법다워야 한다. 승복을 입고 집을 나섬에 행동이 곧 법칙이 된다. 탐내거나 다투지 않으며, 험뜯거나 이간질하지 않으며, 학문이 뛰어난에 뜻을 현묵(玄默)⁴⁾에 두니 이것을 일러 도인(道人)이라 부르는 것이다.

삼보(三寶)에 참여함이요, 현인(賢人)에서 벗어나 성인(聖人)의 대열에 들어서 정기와 영혼을 씻어 버린다. 그러므로, 군주가 그 보답을 바라지 않고, 부모가 그 힘을 바라지 않으며, 온 천하 사람들이 그에게 돌아가 포섭되지 않은 사람이 없으며, 처자의 양식을 덜어서 옷과 음식을 받들어 공양하며, 몸을 굽혀 우러러 받들되 피곤함과 수고로운 일을 사양하지 않는 것은, 지조와 덕행이 청결하여 신명에까지 통하고, 담박(迫)⁵⁾ 허백(虛白)⁶⁾해야 가히 뛰어나고 귀한 까닭이다.

어리석은 무리들과 사귀어 도법은 쇠퇴함에 이르고, 새로 배우는 사람들은 법칙을 갖추지 못하고, 샅된 것에 집착하고 바른 것을 버리어 그 진실함을 잊고 작은 피로써 지혜를 삼고, 작은 공경으로써 만족을 삼아 종일토록 배불리 먹으면서 마음을 힘쓰지 않다. 물러나 스스로 살펴 보니 진실로 또한 슬프도다. 출

恭爲足，飽食終日，無所用心，退自推觀，良亦可悲，計今出家，或有年歲，經業未通，文字不決，徒喪一世，無所成名，如此之事，可不深思，無常之限，非旦即夕，三塗苦痛，無強無弱，師徒義深，故以申示，有情之流，可爲永誠。

其一曰：卿已出家 永違所生 剃髮毀容 法服加形. 辭親之日 上下涕零 割愛崇道 意凌太清. 當遵此志 經道修明 如何無心 故存色聲? 悠悠竟日 經業不成 德行日損 穢積遂盈. 師友慙恥 凡俗所輕 如是出家 徒自辱名. 今故誨勵 宜當專精.

其二曰：卿已出家，棄俗辭君，應自誨勵，志果青雲. 財色不顧，與世不群，金玉不貴，惟道爲珍. 約己守節，甘苦樂貧，進德自度，又能度人. 如何改操，趨走風塵，坐不暖席，馳東西，劇如役，縣官所牽，經道不通，戒德不全.

朋友蚩弄，同學棄捐. 如是出家，徒喪天年. 今故誨勵，

가한 것을 헤아리니 몇 년이 지났으나, 경전의 공부에 통달치 못하고, 문자를 분명히 알지 못한 채, 헛되이 일생을 보낸 지라 이름을 이룬 바가 없도다. 이와 같은 일을 어찌 깊이 생각하지 않으리?

무상의 한계는 아침이 아니면 곧 저녁이라. 삼악도(지옥·아귀·축생)의 고통은 말할 수 없이 심하고 스승과 제자의 의리는 깊기에 이에 써서 가르치노니 중생들은 오래도록 조심하고 삼가해야 할 것이다.

첫째, 그대가 출가하니 나온(生) 바를 영원히 어김이라. 삭발하고 법복을 입고 부모와 하직하는 날에 서로가 울었도다. 애정을 끊고 도(道)를 숭상하니 그 뜻이 하늘 같은 기백을 능가하는구나. 마땅히 이 뜻을 좇아서 경전(經典)의 도(道)를 닦고 밝힘이 어늘 어찌 무심하여 여전히 옛날 익힌 습관 그대로 사랑분별하고 날이 다하도록 느긋한가? 경전의 공부도 이루지 못하고 덕행(德行)은 날로 줄어 들고 더러움만 짝 참이라. 스승과 벗이 부끄러워하여 속인(俗人)들이 가볍게 여김이라. 이런 출가는 한낱 자신의 이름만 욕되게 함일세. 이에 격려하노니 마땅히 한결같이 정진할 지어다.

둘째, 그대가 출가하니 속세를 버리고 국왕과 사례함이라. 응당히 스스로 격려하여 과감히 뜻을 걸림없는 청운(靑雲)에 두며, 재색(財色)을 돌아보지 말며, 세상과 더불어 짝짓지 말며, 금옥(金玉)을 귀하게 여기지 말며, 오직 도(道)만 보배로 삼으며 검약하고 절개를 지키며 고통을 달게 여기며, 빈궁함을 좋아하며 덕(德)에 나아가 스스로 구제하며, 또한 능히 다른 사람도 구제해야 함이 어늘, 어찌하여 지조가 변해서 세상으로 향하고 자리에 오래 앉아 있지 못하고 사망으로 달림이, 마치 부역으로 고을 관리에게 끌려가는 것처럼 보이는구나. 경전의 도를 통달하지 못하고 계행(戒行)과 덕행(德行)이 온전치 못하니 친한 벗들이 희롱하고 도반들이 버리고 줄어듬이라. 이런 출가는 한낱 일생만 잃음일세. 이에 격려하노니 마땅히 각자 스스로를 불쌍히 여겨라.

셋째, 그대가 출가하니 영원히 종족과 하직함이라. 친함도 없고 성글음도 없으며 청정하고 욕심도 없어서 좋은 일에 기뻐하지 않으며 나쁜 일에도 근심하지 않으며 초연히 속세를 떠나 활연히 깨달아, 뜻을 불법에 두고 참됨만 좇으며, 순박함을 지키며 '도(道)'를 깨달아 널리 중생들을 구제하고 복을 입혀야 하거늘, 어찌 무심(無心)하여 오염된 것에 집착하고, 헛되이 길고 짧은

宜各自憐.

其三曰：卿已出家，永辭宗族，無親無疎，清淨無欲. 吉則不歡 凶則不，超然縱容，豁然離俗，志存玄妙，軌真守樸，得度廣濟，普蒙福祿，如何無心，仍着染觸？空諍長短，銖兩升斛，與世爭利，何異僕. 經道不明，德行不足，如是出家 徒自毀辱. 今故誨示 宜自洗浴.

其四曰：卿已出家，號曰道人，父母不敬，君帝不臣. 普天同奉，事之如神，稽首致敬，不計富貧. 尙其清修，自利利人，減割之重，一米七斤，如何怠慢，不能報恩，倚縱遊逸，身意虛煩？無戒食施，死入泰山，燒鐵爲食，融銅灌咽，如斯之痛，法句所陳. 今故誨約，宜改自新.

其五曰：卿已出家，號曰息心，穢雜不着，惟道是欽，志參清潔，如玉如冰. 當修經戒，以濟精神，衆生蒙祐，并度所親. 如何無心，隨俗浮沈，縱其四大，恣其五根. 道德遂淺，世事更深，如是出家，與世同塵. 今故誨約，幸自開神.

其六曰：卿已出家，捐世形軀，當務竭情，泥洹合符. 如何擾動，不樂閒居，經道損耗，世事有餘，清白不履，反入泥

을 다투고, 뒷박으로 세상과 더불어 이익을 다투니, 어찌 머슴과 다를 바가 있겠는가? 경전의 도를 밝히지 못하고 덕행(德行)도 부족함이라, 이런 출가는 한낱 스스로를 욕보임일세. 이에 격려하노니 마땅히 스스로를 깨끗하게 할지어다.

넷째, 그대가 출가하니 도인(道人)이라 이름하니라.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임금을 섬기지 않으며 천하가 함께 받들어 신과 같이 섬기며 머리를 조아려 공경을 다하대 부유하고 가난한 것을 헤아리지 않으니, 자신에게도 이롭고 타인에게도 이롭게 하는 청정한 수행을 숭상함이라. 시주의 은혜가 쌀 한 톨이 일곱 근이거늘 어찌 태만하여 은혜를 갚지 아니하고 방종하여서 몸과 마음이 헛되고 번거로운고. 계행이 없이 시주물만 소비하면 죽어서 태산지옥에 들어가 불타는 철로 밥을 삼고 구리를 녹여 목구멍에 들일 것이니 이와같은 고통은 범구경에 진술되어 있느니라. 이제 짐짓 경계하노니 마땅히 고쳐서 스스로 새롭게 할지어다.

다섯째, 그대가 출가하니 '마음을 쉽'이라 이름하니라 더러운 것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오직 도를 공경하며, 뜻을 청결한 대중에 두는데 옥과 같이 깨끗하고 얼음과 같이 냉철하게 하며 마땅히 불경과 계를 닦아 정신을 가지런하게 하면 중생이 도움을 받고 아울러 친한 사람도 제도되거늘 어찌 무심하여 세속에 따라 가라앉았다 뜨고, 사지(四肢)를 방종하고 오근(五根)을 방자하여 도(道)와 덕(德)은 마침내 천박해지고 세상의 일에 다시 깊이 관여하는가! 이와 같은 출가는 세속과 더불어 번뇌를 함께함일세. 이제 짐짓 경계하노니 스스로 정신을 개화하기를 바라노라.

여섯째, 그대가 출가하니 속세의 몸을 버림이라. 마땅히 힘써 망념(妄念)을 다하여 해탈(열반)에 부합해야 하거늘 어찌 요동하여 한가로이 거함을 즐기지 않는가? 경전에서 설한 불도(佛道)가 손상되고 세상의 일이 남음이라. 깨끗한 곳을 걷지 아니하고 돌이켜 악도(惡道)에 들어가도다. 지나가는 그림자같은 목숨이 잠깐이고 지옥의 고통은 자세히 쓰기가 어려울새. 지금 짐짓 경계하고 격려하노니 마땅히 옛 성인의 법훈(法訓)을 숭상할지어다.

일곱째, 그대가 출가하니 자신을 너그럽게 할 수 없다. 몸은 비록 누추하나 행동은 불만하며, 의복을 비록 거칠지라도 앓고 일어나매 단정히 하며, 음식은 비록 소박하나 말을 함에는 법도에 맞는 말을 하며, 여름에는 더위를 참고, 겨울에는

途? 過影之命, 或在須臾, 地獄之痛, 難可具書. 今故戒勵, 宜崇典謨.

其七曰: 卿已出家, 不可自寬. 形雖鄙陋, 使行可觀, 衣服雖序, 坐起令端, 飲食雖疎, 出言可餐. 夏則忍熱, 冬則忍寒, 能自守節, 不飲盜泉, 不肖之供, 足不妄前, 久處私室, 如臨至尊, 學雖不多, 可齊上賢. 如是出家, 足報二親, 宗親知識, 一切蒙恩. 今故誡汝, 宜各自敦.

其八曰: 卿已出家, 性有昏明, 學無多少, 要在修精. 上士坐禪, 中士誦經, 下士堪能塔寺經營, 豈可終日, 一無所成. 立身無聞, 可謂徒生. 今故誨汝, 宜自端情.

其九曰: 卿已出家, 永違二親, 道法革性, 俗服離身. 辭親之日, 乍悲乍欣, 邈爾絕俗, 超出埃塵, 當修經道, 制已履眞, 如何無心, 更染俗因. 經道已薄, 行無毛分, 言非可貴, 德非可珍, 師友致累, 喪恨日殷, 如是出家, 損法辱身
思之念之, 好自將身.

추위를 참으며, 스스로 절조(節操)를 지켜서 깨끗하지 않은 물은 마시지 않으며, 법답지 못한 공양에는 나아가지 아니하고, 오래도록 독방에 거하되 부처님 앞에 있는 듯하면 배움이 비록 많지 않으나 현인(賢人)과 나란해질지니, 아와 같은 출가라야 양친의 은혜를 갚고 아는 친척들이 일체 은혜를 입을 것이다. 지금 짐짓 그대를 경계하노니 마땅히 각자 돈독히 할지이다.

여덟째, 그대가 출가하니 성품은 어둡고 밝음이 있음이라. 배움이 많고 적음을 막론하고 요점은 정밀하게 닦는데 있으니, 상근기는 좌선하고 중근기는 송경(誦經)하고 하근기는 탑과 절을 경영해야 하거늘 어찌 종일토록 하나도 이루는 것이 없는가? 입신하여 알려짐이 없으면 헛된 삶일새.

지금 짐짓 그대에게 가르치노니 마땅히 출가한 뜻을 바로할지이다.

아홉째, 그대가 출가하니 영원히 양친을 떠남이라. 불법으로 심성을 개혁하고 속복을 몸에서 버릴지로다. 부모를 떠나던 날에 잠깐 슬프고 잠깐 기쁘거늘 세속을 멀리 끊어버리고 속세의 번뇌를 끊어버렸을진대 마땅히 경전에서 설한 도(道)를 닦아 몸을 억제하고 진리를 이행해야 하거늘

어찌 무심하여 다시 세속 인연에 물들고 경전에서 설한 도를 가벼이하고, 행함은 털끝만큼도 없음인가! 좋은 말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며 덕을 보배롭게 여기지 않으면 스승과 벗에게 폐를 끼치고 성내고 한탄함만 나로 더하게 되리니 이와 같은 출가는 법을 헤치고 몸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생각하고 기억하여 스스로 몸을 단속할 지이다.

- 주) 1) 남북조 시대의 북조의 하나로 宇文覺이 西魏의 뒤를 이어 세운 나라
- 2) 임금이 사는 곳
- 3) 성(姓)은 요(姚)씨, 병익호성(馮翊胡城)의 사람. 일정한 스승을 정함이 없이 큰스님이 있다는 말만 들으면 찾아 갔다. 임금의 명령으로 불렀으나 "폐하(陛下)는 백성을 위하시므로 나오시고 빈도(貧道)는 법(法)을 위하여 나가지 않습니다"라고 답함. 독자이므로 어머니를 대중홍사에 모셔 놓고 어머니의 진지를 지어드리고 난 뒤에 강의를 하였다한다. 수나라 文帝開皇末(600년)에 입적(入寂)
- 4) 속이 깊고 사려가 있는 모양, 필요 없는 말을 아니하고 몸가짐이 단정한 모습
- 5) 욕심이 없고 마음이 깨끗한 것
- 6) 장자(莊子)의 '虛室生白'에서 나온 말로 生은 드러난다는 말이고 白은 밝음, 즉 방이 비어 있으니 밝음이 드러난다는 뜻. 망상이 없는 깨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소년소녀가장 돕기 후원안내

귀의 삼보하옵고.

빠속을 에이는 추위는 전년에 비해 훨씬 덜하지만 마음은 더욱 뽕뽕 얼어붙어 버린 느낌입니다. 때아닌 경제부도사태로 인해 국민들 모두가 시름에 잠긴 채 어찌할 바를 몰라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 갑작스런 사고로 부모를 잃었거나, 부모가 있다해도 장애자이거나 여러 사정으로 인해 가장아닌 가장의 위치에서 어렵게 생활하는 소년소녀가장들은 더욱 더 마음이 아프고 생활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우리의 작은 정성을 모아 훈훈한 정을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난 한 해동안 소년소녀가장 돕기에 동참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변함 없는 관심과 동참바라며, 아울러 새로운 분들의 동참을 권해 봅니다.

늘 부처님의 가피가 항상하기를 기원합니다.

- 우체국 온라인 / 503490-0043410
- 예 금 주 / 소년소녀(황소연)
- 연 락 처 / 전남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12 (우: 540 - 930)
- 송광사 강원혜 룬 ☎ (0661) 755 - 5302

송광사 발전기금 적립상황

@ 정혜사편집실 기금

이월금액 - 12,054,230원

수입액 - 405,550원

지출액 - 1,000,000원(15호 발간비용)

잔액 - 11,459,780원

@ 범망경판매 수입금

이월액 - 28,484,050원

수입액 - 6,899,000원

지출액 - 0원

잔액 - 35,383,050원

@ 현 적립 총액: 46,842,830원

편집후기

안거가 시작된 후 사중의 가장 큰 행사인 김장운력과 구산대종사님의 추모재를 봉행한 후 곧바로 원고 모집에 들어갔다. 그러나, 기대했던 만큼 원고가 많이 나오지 않아 다시 기일을 연장하면서 대중스님들과 씨름을 했다. 설상가상으로 사진을 담당했던 스님께서 신병치료차 휴학하는 바람에 소임에 대한 부담은 더욱 커졌고 어떻게 일을 마쳐야 하나하는 생각으로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기도 했다.

그러나, 다행히도 편집위원스님들의 도움과 도반스님들의 조언, 그리고, 전임 편집장스님의 원고교정에 도움을 받아 무사히 작업을 마칠 수 있었다.

요즘 바깥은 IMF한파로 인해 모두들 몸과 마음이 굳어졌다고 하는데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서 조금이나마 마음의 여유를 되찾고, 어려울 때 일수록 훈훈함을 베푸는 인정이 많았으면 좋겠다.

☺ 정혜사 발간에 도움을 주신 분들

■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류인석, 박보현화, 허명옥, 우순엽, 극락전
이희림, 김성재, 김지나, 안병원, 박삼순
김숙향, 김광명화, 홍원표, 강정윤, 이병운
이현임, 무심행, 도서출판 보림

☺ 정혜사 후원자를 모십니다

정혜사가 '호'를 거듭할수록 여러 불자님들의 호평과 때로는 질책으로 나날이 성장해 가고 있지만, 아직은 여러면에서 부족합니다.

저희들의 맑은 음성을 전하는데는 여러 불자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십시일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정성이 모아지면 큰 힘이 됩니다.

도움을 주실 분은 아래 온라인번호로 입금해 주시고 '정혜사' 편집실로 주소를 알려주시면 '정혜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우체국 온라인 : 502864-0205429-17

예금주 : 서화교

주소 : 전남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12 정혜사 편집실

우. 541-930 ☎ (0661) 755-5300, 5302

불기 2542년 송광사강원

신입 및 편입 방부 안내

2542년도 송광사강원 신입 및 편입 방부를 다음과 같이 받습니다.

방부받는 반	치문반	편입 〇〇 명
	사집반	편입 〇〇 명
	사교반	편입 〇 명

자 격	치문반 : 사미계 수지자
	사집반 : 편입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사교반 : 편입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제 출 서 류	방부원서	2부
	은사스님 추천서	1부
	승적사본	1부
	승려증사본	1부
	수료증(편입생)	1부
	사진 (3 × 4)	3매
	방부금	20만원

준 비 물 : 대가사(비구) · 만의가사(사미) · 장삼 · 바루

전 형 방 법 : 서류, 면접

방 부 기 간 : 불기2542년 3월 2일 ~ 5월 4일 (양력)

문 의 처 : (0661) 755-5300, 755-5302

송 광 사 강 원



상사당(上舍堂) 구참(久參)앉고 하사당(下舍堂) 신학(新學)앉아
이뵈고 화두참구 면벽정좌(面壁靜坐) 몇해런고
서굶다 외구불타(外求佛陀)는 종신도로(終身徒勞) 이런 걸

* 인암스님의 송광사 순례시조집 중에서

下舍堂 보물 제263호로 방장스님의 시자스님이 기거하는 곳이다.